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12.)

목 차

I. 조사 배경	9
1. 현황 및 실태	11
2. 문제점 및 원인분석	12
II. 조사 방법	15
1. 본 사업목적	17
2. 조사개요	17
III. 자료분석 결과	19
1. 빈도 및 기술통계	21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2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평균	28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및 경로	29
(1)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29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30
3) 반려동물 특성	31
(1)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31
(2) 키우는 반려동물의 특성	34
4)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조사	35
(1) 반려동물 등록현황 및 알게 된 경로	35
(2)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37

목 차

5) 중성화 수술에 관한 조사	40
6) 반려견 산책	41
7)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	43
8) 반려동물 예방접종 현황	44
(1)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44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45
9) 동물병원 방문이유 및 보험등록 유무	47
(1)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	47
(2)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 유무	48
10)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49
11) 반려동물을 통한 변화	50
(1) 반려동물을 통한 삶의 만족도 변화	50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52
(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이외의 변화)	54
(4)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54
12)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	55
13)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및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57
14)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59
(1)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59
(2)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60
15)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내용	61
(1)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	61
(2)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63
(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64

목 차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65
1)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65
2)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66
3) 반려동물 지출 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68
4) 동물병원 경험 및 예방접종에 관한 교차분석	69
(1)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69
(2)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2
(3)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4
(4)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76
(5)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8
(6)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9
5)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81
6)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84
7)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86
8) 동물병원 방문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87
9)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91
1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93
11)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9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98
1)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98
2)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99
3)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101
IV. 제언	103
첨부1. 설문지	109

표 목 차

<표>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23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28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30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31
<표>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32
<표> 반려동물의 특성	35
<표>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	36
<표>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39
<표>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41
<표> 반려견 산책 빈도	42
<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다중응답)	43
<표>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45
<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46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다중응답)	48
<표>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48
<표>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다중응답)	50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51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52
<표> 이외의 변화	54
<표>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55
<표>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과 이유(다중응답)	56
<표>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58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59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61
<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62

표 목 차

<표>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63
<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64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65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67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68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70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2
<표>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4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76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78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80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83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84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86
<표>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89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91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94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97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98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100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101

I . 조사 배경

I. 조사 배경¹⁾

1. 현황 및 실태

□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나 이 가운데 동물을 적정하게 돌보며 평생 반려생활을 누리는 가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 2014년부터 의무화 된 한국의 반려견 동물등록률은 시행된 지 5년이 넘도록 3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 시보호소에 입소되는 연간 유기동물의 수만 10만 마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 사설보호소 등에 흡수되는 유기동물의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시보호소 입소동물의 절반가량은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시보호소에서 ‘안락사’ 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강아지 공장에서 탄생하여 사람들에게 판매되기 위해 상품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이 있다. 이들은 ‘탄생-죽음’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유기동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한편 분양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동물의 개체 증식에 별다른 주의와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지,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태어난 동물들을 주변에 확산 시키고 있다. 많은 경우 준비되지 않은 즉각적인 돌봄 생활이 시작된다.

□ 2017년과 2018년 농림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제일 큰 경로는 지인으로 부터의 분양이었다.²⁾ 일반 가정의 개체 증식이 비밀비

1) 이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서울시 동물의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건강검진 및 집중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본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취약가구(저소득층/애니멀 호더)와 취약지구(재개발 지역) 등 서울시 돌봄 취약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은 돌봄 취약층 대상 중성화 지원 사업의 이용자이기도 했던 취약가구에 대해 이뤄진 반려동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2)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44%), 펫샵에서 구입(21.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19.7%), 지자체나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입양(4.8%), 인터넷 구입(6.1%), 기타

제하며 이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2017년도에 이뤄진 재개발지역 동물유기 관련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반려가구의 다수가 고령이었으며 반려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족과 친지 혹은 지인의 사정에서 비롯된 갑작스런 동물 떠맡김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단독주택일 경우 동물등록과 중성화 비율이 낮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동물의 기본적인 육구충족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올바른 정보 습득 및 반려동물 양육비용(사료비, 건강유지비, 미용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이다. 더불어 반려동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 반려하겠다는 마음 다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지 않고 무작정 양육을 시작하면 반려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거나(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부실을 자연스럽게 합리화하는 등)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돌봄 취약지구/취약가구는 여러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돌봄생활의 위험에 1차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동물유기나 동물방치 등 동물 돌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들로서 이에 대한 문제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2.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우선 저소득층은 반려동물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돌봄 취약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

(4.1%)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17.12)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50.2%), 펫샵에서 구입(3.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10.8%), 길거리에서 데려옴(5.5%), 인터넷 구입(4.9%), 보호시설 입양(3.7%),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구입(1.5%), 채집(0.4%)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018.12)

비, 결혼, 이사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해소되어야 할 많은 당면 문제를 떠안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반려동물 유기 리스크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뜻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개체 증식과 건강 악화는 곧 경제적 부담의 가중이며 부담이 커질수록 위험은 커진다. 저소득층 반려가구는 동물등록 미이행은 물론 평생 반려동물 건강검진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경우도 많다.

□ 한편 애니멀 호더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동물 돌봄 마리수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 고질적인 동물 방치로 동물들을 질병과 사망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한편 지역사회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 속한다. 게다가 다수의 동물들이 격리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개체 수가 순식간에 증식되어 문제는 더욱 빠르게 심화, 심지어 동물을 학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저소득층과 애니멀 호더는 가장 먼저 예의주시 해야 하는 돌봄 취약가구이다. 특히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여러 마리 데리고 있기에 집중 중성화를 필요로 하는데 대상 동물이 한번에 적게는 20마리 내지 경우에 따라(예. 사설 보호소) 많게는 80마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 돌봄 취약지구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 반려가구는 이주가 시작되면 동물과 함께 거주할 곳을 찾기보다 유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소유가 불분명한 모호한 경계 속에 최소한의 돌봄 역할을 해왔던 떠돌이 개와 길고양이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역할을 포기하고 떠나게 된다. 곧 공사가 시작될 지역에 버려지거나 남겨진 동물들은 개체 수 증식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미지의 동물유기 및 방치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과거 재개발 지역 대응사례를 보면 1개 재개발 지구에서만 한꺼번에 30~50마리의 길고양이가 시급히 중성화를 필요로 하는 등 동물복지와 문제의 심화 방지 모두를 위하여 집중 중성화가 1차적이다.

□ 너무 많은 유기동물의 발생과 여기에 강아지 공장 못지않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일반인들 사이의 개체증식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중성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알려준다. 또한 저소득층과 애니멀 호더 같은 돌봄 취약가구 내지는 재개발 지역 등과 같은 돌봄 취약지구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면서도 개체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II. 조사 방법

II. 조사 방법

1. 조사 목적

-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의 이용자였던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실태 파악
- 돌봄 취약가구인 저소득층³⁾ 신청자와 제보/접수된 애니멀 호더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현황 확인 및 분석

2.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9년 04월 ~ 2019년 12월
- 조사 대상 : 서울시 돌봄 취약층 대상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 신청자 가운데 취약가구 참여 대상자⁴⁾
- 조사 방법 : 1:1 서베이조사
- 분석 방법
 - 1) 자료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을 실시
 - 2) 엑셀통계를 통한 다중응답 교차분석 실시

3) 본 사업의 저소득층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 충족자 가운데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요소를 반영한 우선순위순 선정 원칙을 두었다.

4) 취약가구 대상자 220인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총 211인이었으며 본 자료분석은 이 211인 이용자가 작성한 설문지 답변에 기초한다.

Ⅲ. 자료분석 결과

Ⅲ. 자료 분석 결과

1. 빈도 및 기술통계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53명(25.1%), 여자 158명(74.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46명(21.8%), 50대 42명(19.9%), 20대 42명(19.9%), 30대 31명(14.7%), 10대 이하가 16명(7.6%), 60대 이상 34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분포가 20대에서 50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인도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동북권역이 93명(44.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 서남권역 43명(20.4%), 서울 동남권역 34명(16.1%), 서울 도심권 26명(12.3%), 서울 서북권역 15명(7.1%)의 비율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구별로 빈도를 확인해보면, 노원구가 50명(2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은평구, 강남구, 강서구가 각각 15명(7.1%),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가 각각 12명(5.7%), 관악구가 9명(4.3%), 마포구와 용산구가 각각 8명(3.8%), 금천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7명(3.3%), 동대문구가 6명(2.8%), 도봉구와 성동구가 각각 5명(2.4%), 구로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각각 4명(1.9%), 광진구 3명(1.4%),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종로구가 각각 2명(0.9%), 서초구와 중구가 각각 1명(0.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 주택형태의 경우 연립/빌라/다세대 주택이 100명(4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파트 85명(40.3%), 단독주택 26명(12.3%)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가구형태의 경우 2세대가 111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인 세대(혼자 거주)가 65명(30.8%), 1세대(부부)가 16명(7.6%), 3세대가 11명(5.2%), 기타세대가 8명(3.8%)의 비율을 보였다.

- 소득구간으로는 100~150만원 미만인 75명(3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00만원 미만도 65명(30.8%)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이 46명(21.8%)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150~200만원 미만이 12명(5.7%) 순으로 나타났다.
- 동거가족의 수의 경우 1명이 92명(4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3명이 46명(21.8%)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2명이 39명(18.5%), 4명이 26명(12.3%), 5명 이상이 8명(3.8%) 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수의 경우 1마리가 145명(68.7%)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마리가 58명(27.5%), 3마리 이상이 8명(3.8%)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암수를 확인한 결과, 암컷이 179마리(62.4%)의 비율을 보였으며, 수컷이 108마리(37.6%)의 비율을 보였다.
- 반려동물 지출 비용의 경우 50,000~100,000원 미만이 85명(4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57명(28.1%), 30,000~50,000원 미만이 22명(10.8%), 30,000원 미만이 20명(9.9%), 200,000원 이상이 19명(9.4%)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개’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 170명을 대상으로 키우고 있는 비율을 확인한 결과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상이 116명(6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마리가 48명(28.3%), 3마리 이상이 6명(3.5%)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성비로는 암컷이 142마리(61.7%), 수컷이 88마리(38.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지출비용을 확인한 결과 50,000~100,000원 미만이 88명(4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100,000~200,000원 미만이 62명(30.0%), 30,000~50,000원 미만이 24명(11.6%), 200,000원 이상이 17명(8.1%), 30,000원미만이 16명(7.7%)순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 41명을 대상으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 마리 수에 관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대상이 29명(7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2마리가 10명(24.4%), 3마리 이상이 2명(4.9%)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의 성비로는 암컷이 37마리(64.9%), 수컷이 20마리(35.1%)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지출 비용을 확인한 결과 50,000~100,000원 미만이 24명(4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00,000원 이상이 10명(18.9%), 100,000~200,000원 미만 9명(17.0%), 30,000원 미만이 8명(15.1%), 30,000원~50,000원 미만이 2명(3.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중 반려동물을 과거에 키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있다’가 116명(55.0%), ‘없다’가 95명(45.0%)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키운 기간을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이 32명(3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17명(20.0%), 1~2년 미만이 13명(15.3%), 3~5년 미만이 11명(12.9%), 2~3년 미만이 10명(11.8%), 1년 미만이 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일반적 특성(빈도분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여성	158	74.9
	남성	53	25.1
	총계	211	100.0
연령대	10대 이하	16	7.6
	20대	42	19.9
	30대	31	14.7
	40대	46	21.8
	50대	42	19.9
	60대 이상	34	16.1
	총계	211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거주권역	도십권	26	12.3
	서북권	15	7.1
	동북권	93	44.1
	서남권	43	20.4
	동남권	34	16.1
	총계	211	100.0
거주지역	강남구	15	7.1
	강동구	2	.9
	강북구	12	5.7
	강서구	15	7.1
	관악구	9	4.3
	광진구	3	1.4
	구로구	4	1.9
	금천구	7	3.3
	노원구	50	23.7
	도봉구	5	2.4
	동대문구	6	2.8
	동작구	2	.9
	마포구	8	3.8
	서대문구	7	3.3
	서초구	1	.5
	성동구	5	2.4
	성북구	12	5.7
	송파구	4	1.9
	양천구	2	.9
	영등포구	4	1.9

	구분	빈도(명)	퍼센트(%)
거주지역	용산구	8	3.8
	은평구	15	7.1
	종로구	2	.9
	중구	1	.5
	중랑구	12	5.7
	총계	211	100.0
주택형태	단독주택	26	12.3
	아파트	85	40.3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00	47.4
	총계	211	100.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65	30.8
	1세대(부부)	16	7.6
	2세대	111	52.6
	3세대	11	5.2
	기타	8	3.8
	총계	211	100.0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65	32.8
	100~150만원 미만	75	37.9
	150~200만원 미만	12	6.1
	200만원 이상	46	23.2
	총계	198	100.0
동거가족 수	1명	92	43.6
	2명	39	18.5
	3명	46	21.8
	4명	26	12.3
	5명 이상	8	3.8
	총계	211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반려동물 수	1마리	145	68.7
	2마리	58	27.5
	3마리 이상	8	3.8
	총계	211	100.0
반려동물 성별	암	179	62.4
	수	108	37.6
	총계	287	100.0
반려동물 지출비용	30,000원 미만	20	9.9
	30,000~50,000원 미만	22	10.8
	50,000~100,000원 미만	85	41.9
	100,000~200,000원 미만	57	28.1
	200,000원 이상	19	9.4
	총계	203	100.0
반려동물 수(개)	1마리	116	68.2
	2마리	48	28.3
	3마리 이상	6	3.5
	총계	170	100.0
반려동물 성별(개)	암	142	61.7
	수	88	38.3
	총계	230	100.0
반려동물 지출 비용(개)	30,000원 미만	16	7.7
	30,000~50,000원 미만	24	11.6
	50,000~100,000원 미만	88	42.5
	100,000~200,000원 미만	62	30.0
	200,000원 이상	17	8.1
	총계	203	100.0

	구분	빈도(명)	퍼센트(%)
반려동물 수(고양이)	1마리	29	70.7
	2마리	10	24.4
	3마리 이상	2	4.9
	총계	41	100.0
반려동물 성별 (고양이)	암	37	64.9%
	수	20	35.1%
	총계	57	100.0%
반려동물 지출 비용 (고양이)	30,000원 미만	8	15.1
	30,000~50,000원 미만	2	3.8
	50,000~100,000원 미만	24	45.3
	100,000~200,000원 미만	9	17.0
	200,000원 이상	10	18.9
	총계	207	100.0
키운경험	있다	116	55.0
	없다	95	45.0
	총계	211	100.0
키운기간	1년 미만	2	2.4
	1~2년 미만	13	15.3
	2~3년 미만	10	11.8
	3~5년 미만	11	12.9
	5~10년 미만	17	20.0
	10년 이상	32	37.6
	총계	85	100.0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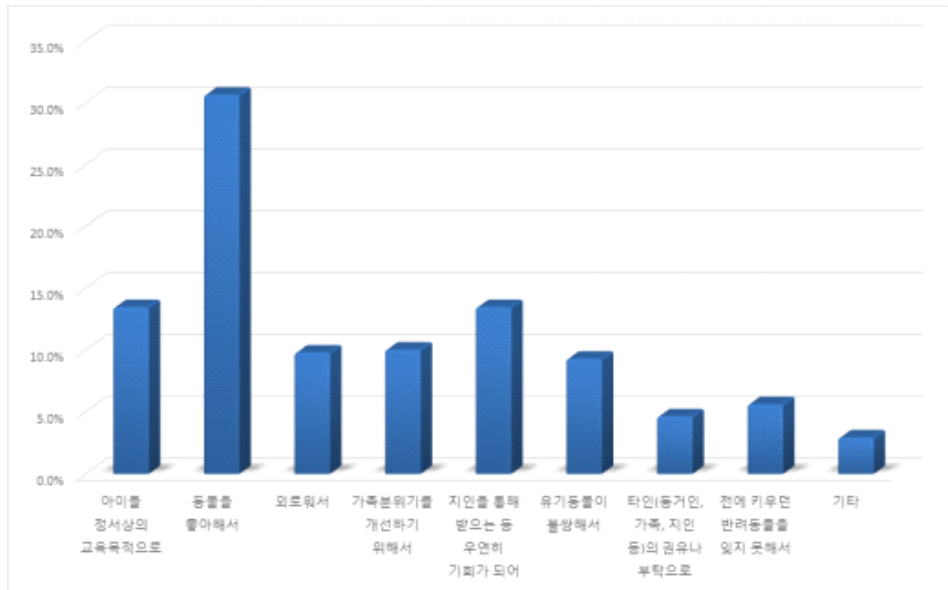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을 확인한 결과, 연령의 경우 평균 42.03세(SD=19.127)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평균 1,297,300원(SD=81,251)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의 수는 평균 2.15명(SD=1.228)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수는 전체 평균 1.58(SD=2.079)마리로 나타났으며, 개의 경우 평균 1.35(SD=2.048)마리로 나타났으며, 고양이의 경우 1.33(SD=1.872)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의 연령의 경우 평균 2.88세(SD=2.523)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지출비용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87,241원(SD=92,443)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에 관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7.5년(SD=6.195)으로 나타났다.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구분	평균	SD	최소값	최대값
연령	42.03	19.127	1.00	91.00
소득	1,297,300	81,251	100,000	5,000,000
동거가족 수	2.15	1.228	1.00	6.00
반려동물 수	1.58	2.079	1.00	36.00
반려동물 수(개)	1.35	2.048	1.00	28.00
반려동물 수(고양이)	1.33	1.872	1.00	8.00
반려동물 연령	2.88	2.523	0.10	13.00
한 마리당 지출비용	87,241	92,443	3,000	1,000,000
키운 기간(과거)	7.5	6.195	1.00	20.00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및 경로

(1)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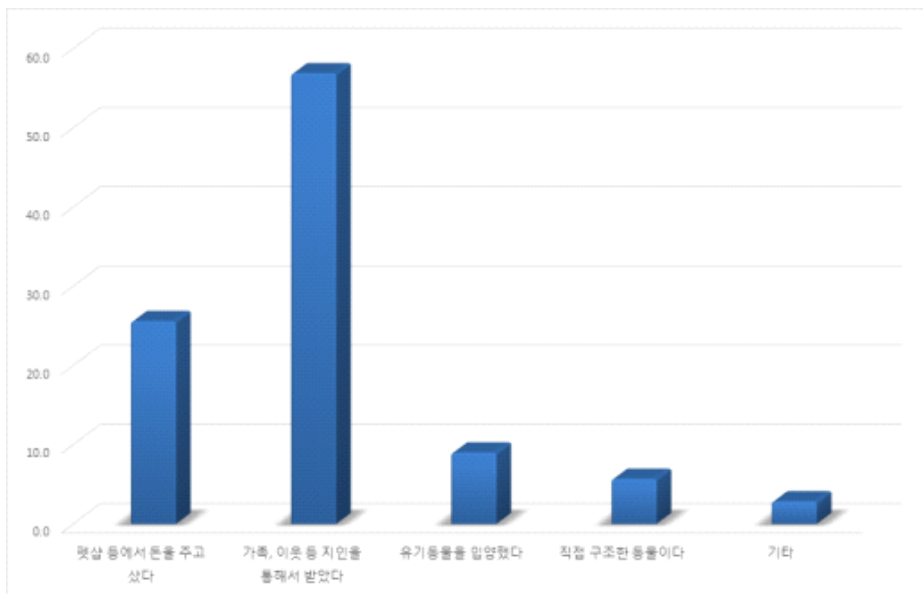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조사결과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조사자가 125명(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조사자와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각각 50명(13.5%)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명(10.0%),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40명(9.8%),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38명(9.3%),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23명(5.6%),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가 19명(4.7%), 기타의견이 12명(2.9%)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가족분양, 가족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구조했다, 언니가 아플 때 키웠다, 입양파티 갔다가, 자녀가 원해서, 집 앞에 버리고 가서 키우게 되었다, 치매가 있어서 개와 대화 나누고 하려고 키우게 되었다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으로	55	13.5
	동물을 좋아해서	125	30.6
	외로워서	40	9.8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41	10.0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55	13.5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38	9.3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19	4.7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23	5.6
	기타	12	2.9
총계		408	100.0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를 확인한 결과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가 120명(56.9%)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경우가 54명(25.6%),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19명(9.0%),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가 12명(5.7%), ‘기타의견’이 6명(2.8%)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 관한 내용으로는 매입구조, 모란시장에서 구입, 유기견의 새끼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54	25.6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120	56.9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19	9.0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12	5.7
	기타	6	2.8
	총계	211	100.0

3) 반려동물 특성

(1)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 반려동물 중 키우는 개의 품종을 확인한 결과 말티즈가 61마리(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믹스가 47마리(20.4%)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푸들이 42마리(18.3%), 치와와 13마리(5.7%) 포메라니안 8마리(3.5%), 시츄 6마리(2.6%), 요크셔테리어·폼피츠·진돗개가 각각 5마리(2.2%), 비숃 프리제·샤페이·스피츠·시바·코커스파니엘이 4마리(1.7%), 골든리트리버·닥스훈트·보더콜리·비글이 각각 3마리(1.3%), 미니어처 핀셔·슈нау저·퍼그가 각각 2마리(0.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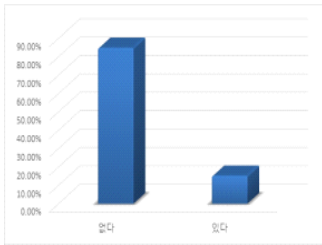
□ 반려동물 중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을 확인한 결과 코리안숏헤어가 34마리 (5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러시안 블루가 5마리(8.8%), 터키쉬앙고라·노르웨이숲이 각각 4마리(7.0%), 브리티쉬 숏헤어·스코티쉬 폴드·스코티쉬 스트레이트·페르시안이 각각 2마리(3.5%), 먼치킨 숏레그·뱅갈이 각각 1마리(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키우는 반려동물의 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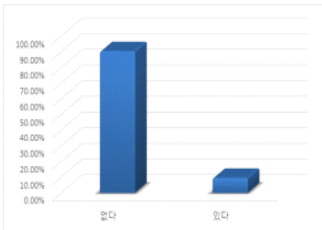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키우는 개의 품종	골든리트리버	3	1.3
	닥스훈트	3	1.3
	말티즈	61	26.5
	미니어처 핀셔	2	0.9
	보더콜리	3	1.3
	비글	3	1.3
	비숑 프리제	4	1.7
	샤페이	4	1.7
	슈나우저	2	0.9
	스피츠	4	1.7
	시바	4	1.7
	시츄	6	2.6
	요크셔테리어	5	2.2
	진돗개	5	2.2
치와와	13	5.7	

	구분	빈도	퍼센트
키우는 개의 품종	코커스파니엘	4	1.7
	피그	2	0.9
	포메라니안	8	3.5
	폼피츠	5	2.2
	푸들	42	18.3
	믹스	47	20.4
	총계	230	100.0
키우는 고양이의 품종	노르웨이숲	4	7.0
	러시안 블루	5	8.8
	먼치킨 숏레그	1	1.8
	뱅갈	1	1.8
	브리티쉬 숏헤어	2	3.5
	스코티쉬 폴드	2	3.5
	스코티쉬 스트레이트	2	3.5
	코리안숏헤어	34	59.6
	터키쉬앙고라	4	7.0
	페르시안	2	3.5
	총계	57	100.0

(2) 키우는 반려동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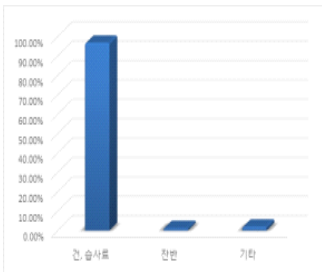


□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및 현재병력을 확인한 결과, 과거병력이 ‘있다’ 라는 응답자가 30명(15.2%), ‘없다’ 라는 응답자가 167명(84.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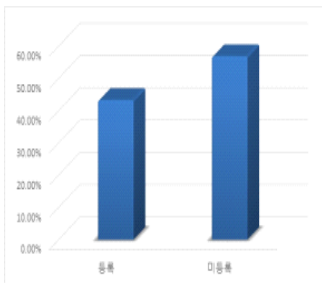


□ 현재 병력에 관한 응답으로 ‘있다’ 라고 한 경우가 18명(9.6%), ‘없다’ 라는 응답자가 170명(90.4%)으로 나타났다.

과거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눈염증, 귀염증, 심장사상충, 홍역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재 병력에 관한 의견으로는 피부병이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으며, 심장사상충, 방광염, 관절염 등의 의견이 있었다.



□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응답으로는 ‘כן, 습사료’ 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3명(96.8%)으로 거의 대다수이고, ‘아니’ 을 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명(1.2%)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도 5명(2.0%)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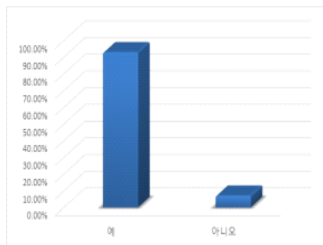
□ 반려동물의 등록에 관한 응답으로는 미등록 133마리(56.8%)이고, 등록이 101명(43.2%)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이 36마리(36.0%), 인식표나 외장형이 64마리(64.0%)로 응답하였다.

〈표〉 반려동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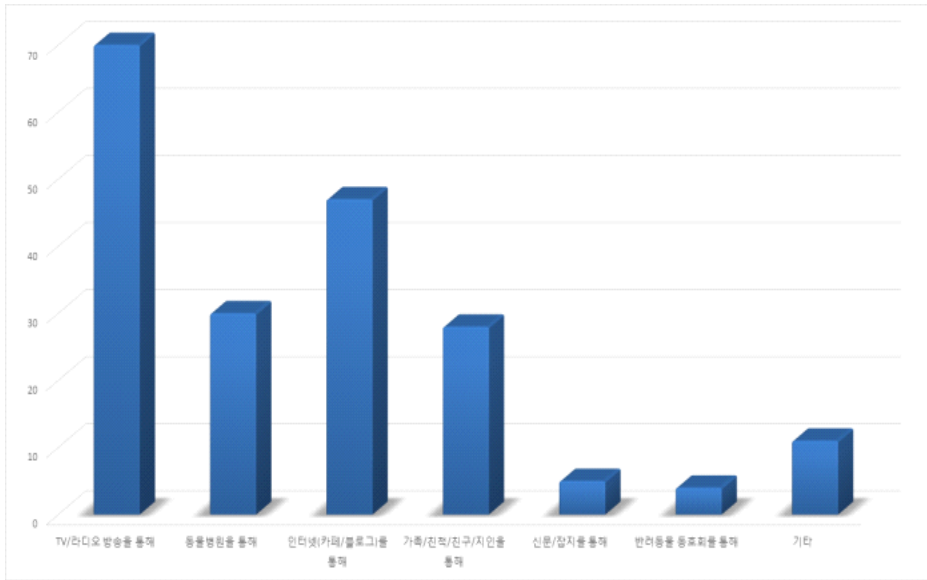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의 과거병력	없다	167	84.8
	있다	30	15.2
	총계	197	100.0
반려동물의 현재병력	없다	170	90.4
	있다	18	9.6
	총계	188	100.0
반려동물의 급식	건, 습사료	243	96.8
	잔반	3	1.2
	기타	5	2.0
	총계	251	100.0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등록	101	43.2
	미등록	133	56.8
	총계	234	100.0
동물등록 방법	인식표나 외장형	64	64.0
	내장형	36	36.0
	총계	100	100.0

4)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조사

(1) 반려동물 등록현황 및 알게 된 경로



□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에 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예’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96명(92.9%), ‘아니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명(7.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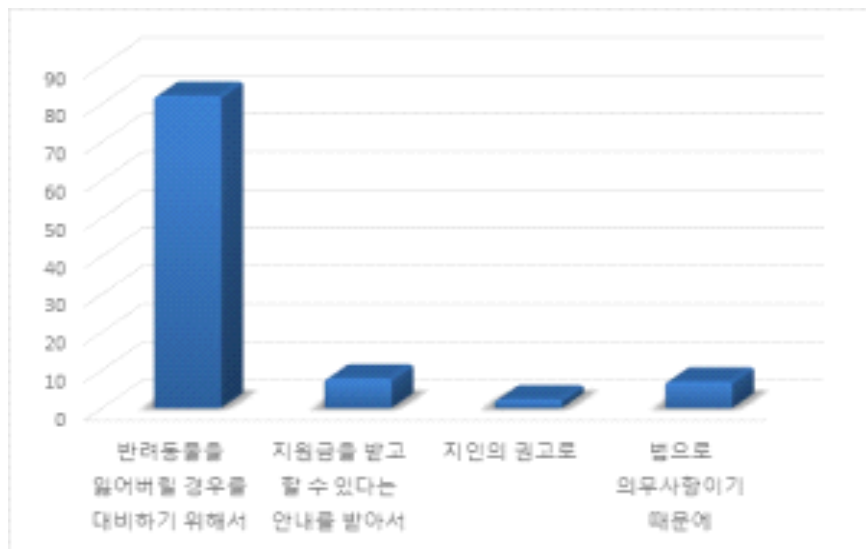
□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TV/라디오 방송을 통해서가 70명 (3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카페/블로그)를 통해서도 47명(24.1%)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동물병원을 통해서가 30명(15.4%),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서가 28명(14.4%), 신문/잡지를 통해서가 5명(2.6%),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서가 4명(2.1%)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도 11명(5.6%)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아파트 게시물(7명), 구청·주민센터를 통해서(3명), 인스타그램(1명)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등록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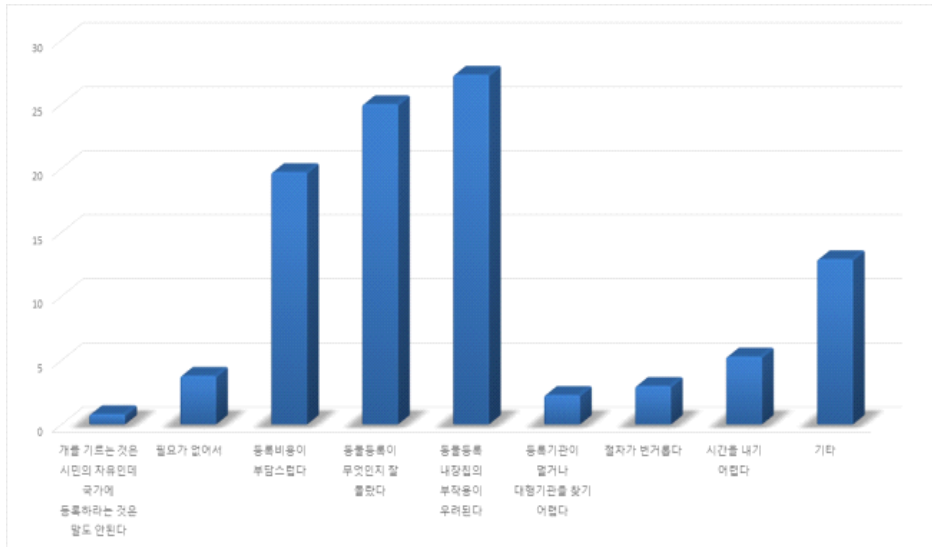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등록제유무	예	196	92.9
	아니오	15	7.1
	총계	211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등록제 알게 된 경로	TV/라디오 방송을 통해	70	35.9
	동물병원을 통해	30	15.4
	인터넷(카페/블로그)를 통해	47	24.1
	가족/친척/친구/지인을 통해	28	14.4
	신문/잡지를 통해	5	2.6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4	2.1
	기타	11	5.6
	총계	195	100.0

(2)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 반려동물을 등록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107명(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가 10명(7.8%),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등록했다가 9명(7.0%), 지인의 권고로 등록했다가 3명(2.3%)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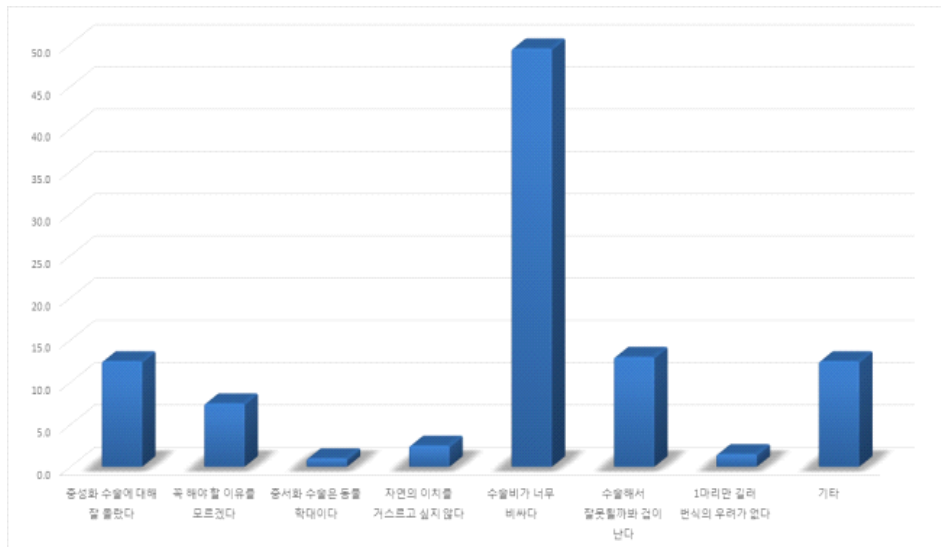


□ 반려동물을 등록 안 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가 36명(2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동물 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응답도 33명(25.0%)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가 26명(19.7%), 시간을 내기 어렵다가 7명(5.3%), 필요가 없어서가 5명(3.8%), 절차가 번거롭다가 4명(3.0%),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가 3명(2.3%),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가 1명(0.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도 17명(12.9%)의 비율을 보였으며, 기타의견으로는 고양이라, 새끼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반려동물 등록 및 미등록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등록이유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107	82.1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10	7.8
	지인의 권고로	3	2.3
	법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9	7.0
	총계	129	100.0
반려동물을 등록 안한 이유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	0.8
	필요가 없어서	5	3.8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	26	19.7
	동물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33	25.0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36	27.3
	등록기관이 멀거나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	3	2.3
	절차가 번거롭다	4	3.0
	시간을 내기 어렵다	7	5.3
	기타	17	12.9
	총계	132	100.0

5) 중성화 수술에 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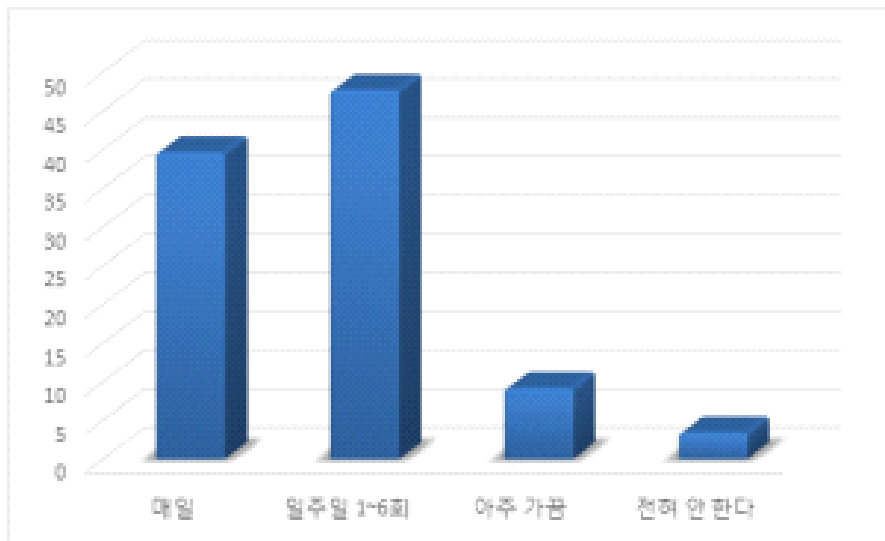


-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에 관한 조사를 확인한 결과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가 99명(4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가 26명(13.0%),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가 25명(12.5%),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가 15명(7.5%),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가 5명(2.5%),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가 3명(1.5%),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다가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견도 25명(12.5%)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어려서, 시간이 없어서, 잠복고환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에 데려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할머니의 반대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25	12.5
	꼭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15	7.5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다	2	1.0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5	2.5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99	49.5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26	13.0
	1마리만 길러 번식의 우려가 없다	3	1.5
	기타	25	12.5
	총계	200	100.0

6) 반려견 산책



□ 반려견 산책빈도를 확인한 결과 매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9명 (39.7%)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6회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83명 (47.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일주일 3회가 29명(16.7%), 일주일에 2회가 15명(8.6%), 일주일에 1회가 14명(8.0%), 일주일에 5회가 12명 (6.7%), 일주일에 4회가 7명(4.0%), 일주일에 6회가 6명(3.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주 가끔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6명(9.2%), 전혀 안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6명(3.4%)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을 확인한 결과 전체산책 빈도는 평균 4.367회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견을 기르는 응답자는 일주일에 평균 4-5일 정도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반려견 산책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반려견 산책 빈도	매일	69	39.7	4.367	
	일주일 1~6회	1	14		8.0
		2	15		8.6
		3	29		16.7
		4	7		4.0
		5	12		6.9
		6	6		3.4
	아주 가끔	16	9.2		
	전혀 안 한다	6	3.4		
	총계	174	100.0		

7)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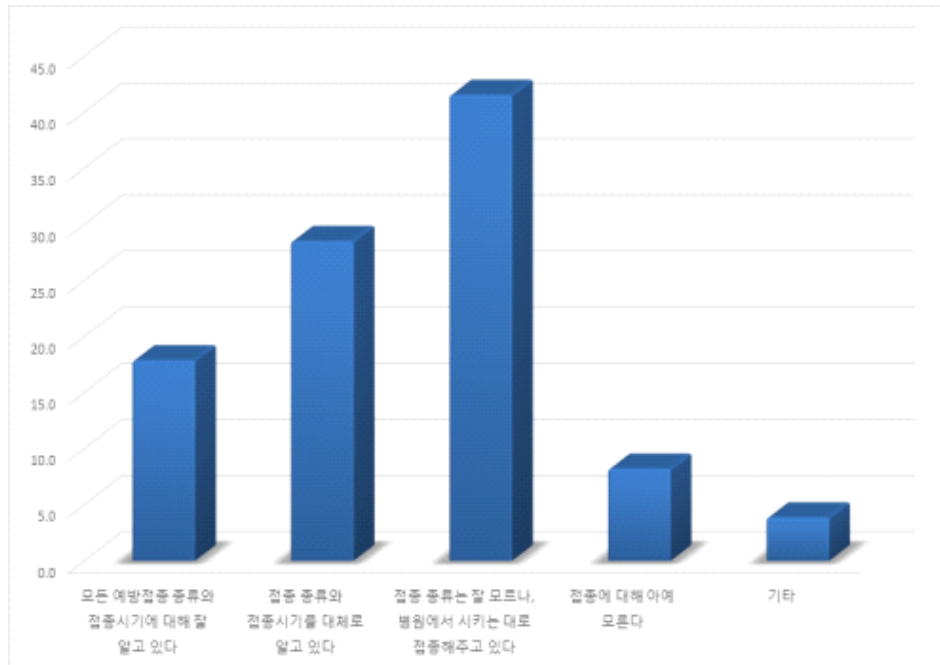
□ 반려동물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의 물품의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44명(1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스크래처가 43명(19.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발톱깎이도 40명(17.7%)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고양이 장난감 여러 개 37명(16.4%), 캣타워 혹은 캣폴 31명(13.7%), 고양이 장난감 1개 27명(11.9%), 기타 3명(1.3%), 하나도 없다가 1명(0.4%)으로 나타났다.

<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고양이 물품의 종류(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고양이를 위해 가지고 있는 물품의 종류	고양이 화장실과 모래	44	19.5
	고양이 장난감 1개	27	11.9
	고양이 장난감 여러개	37	16.4
	캣타워 혹은 캣폴	31	13.7
	스크래처	43	19.0
	발톱깎이	40	17.7
	하나도 없다	1	0.4
	기타	3	1.3
총계		226	100.0

8) 반려동물 예방접종 현황

(1)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가 86명(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가 59명(28.5%),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37명(17.9%),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7명(8.2%), 기타 8명(3.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의 경우 집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 등의 내용이 응답되었다.

〈표〉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예방접종 항목에 관한 이해도	모든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7	17.9
	접종 종류와 접종시기를 대체로 알고 있다	59	28.5
	접종 종류는 잘 모르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접종해주고 있다	86	41.5
	접종에 대해 아예 모른다	17	8.2
	기타	8	3.9
총계		207	100.0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으로 반려견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견 종합백신을 새끼 때 해줬다가 106명(6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 42명(25.8%), 안 해준다 11명(6.7%), 뭔지 모르다가 4명(2.5%)로 나타났다. 또한, 광견병 백신의 경우 1년에 한번이 70명(43.5%), 새끼 때 해줬다가 64명(39.8%), 안 해준다 18명(11.2%), 뭔지 모르다가 9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사상충 예방의 경우 한 달에 한번이 90명(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새끼 때 해줬다가 35명(21.3%), 1년에 한번이 18명(11.0%), 안 해준다 15명(9.1%), 뭔지 모르다가 6명(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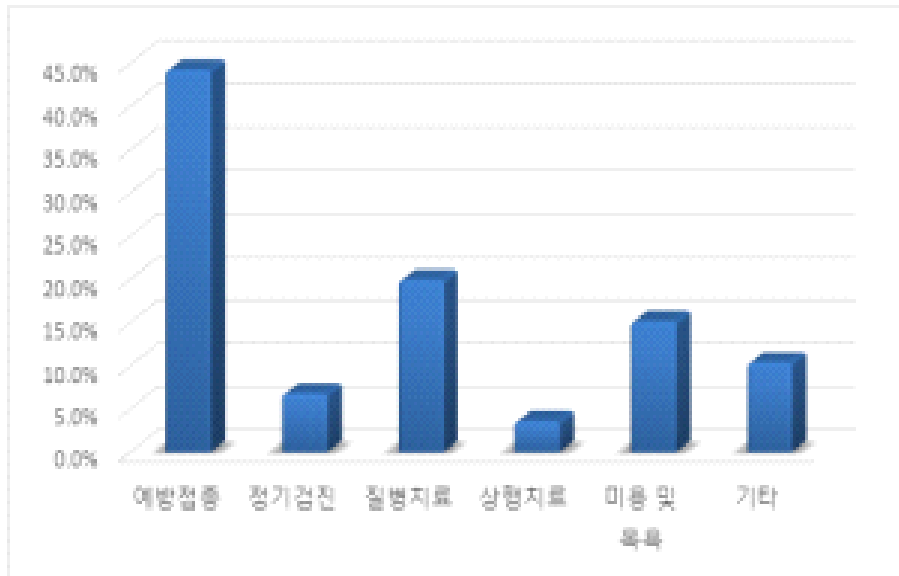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으로 반려묘의 예방접종을 확인한 결과, 반려묘 종합백신으로 새끼 때 해줬다가 33명(6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1년에 한번이 9명(18.8%), 안해준다 5명(10.4%), 뭔지 모르다가 1명(2.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묘 광견병 백신의 경우 안 해준다 13명(28.3%), 뭔지 모르다가 12명(26.1%), 새끼 때 해줬다가 11명(23.9%), 1년에 한번이 10명(2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견 종합백신	안 해준다	11	6.7
	새끼 때 해줬다	106	65.0
	1년에 한번	42	25.8
	뭔지 모른다	4	2.5
	총계	163	100.0
광견병 백신	안 해준다	18	11.2
	새끼 때 해줬다	64	39.8
	1년에 한번	70	43.5
	뭔지 모른다	9	5.6
	총계	161	100.0
심장사상충 예방	안 해준다	15	9.1
	새끼 때 해줬다	35	21.3
	1년에 한번	18	11.0
	한달에 한번	90	54.9
	뭔지 모른다	6	3.7
	총계	164	100.0
반려묘 종합백신	안 해준다	5	10.4
	새끼 때 해줬다	33	68.8
	1년에 한번	9	18.8
	뭔지 모른다	1	2.1
	총계	48	100.0
반려묘 광견병 백신	안 해준다	13	28.3
	새끼 때 해줬다	11	23.9
	1년에 한번	10	21.7
	뭔지 모른다	12	26.1
	총계	46	100.0

9) 동물병원 방문 이유 및 보험등록 유무

(1)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응답으로는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63명(79.5%),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2명(20.5%)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내용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하면, 예방접종이 111명(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질병치료 50명(19.9%), 미용 및 목욕 38명(15.1%), 기타 26명(10.4%), 정기검진 17명(6.8%), 상해치료 9명(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중성화수술, 동물등록, 사료 및 간식 문의, 심장사상충예방, 사료구매, 약처방, 유기견 나이를 물어보러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및 방문 이유(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	있었다	163	79.5
	없었다	42	20.5
	총계	205	100.0
동물병원 방문 이유	예방접종	111	44.2
	정기검진	17	6.8
	질병치료	50	19.9
	상해치료	9	3.6
	미용 및 목욕	38	15.1
	기타	26	10.4
	총계	2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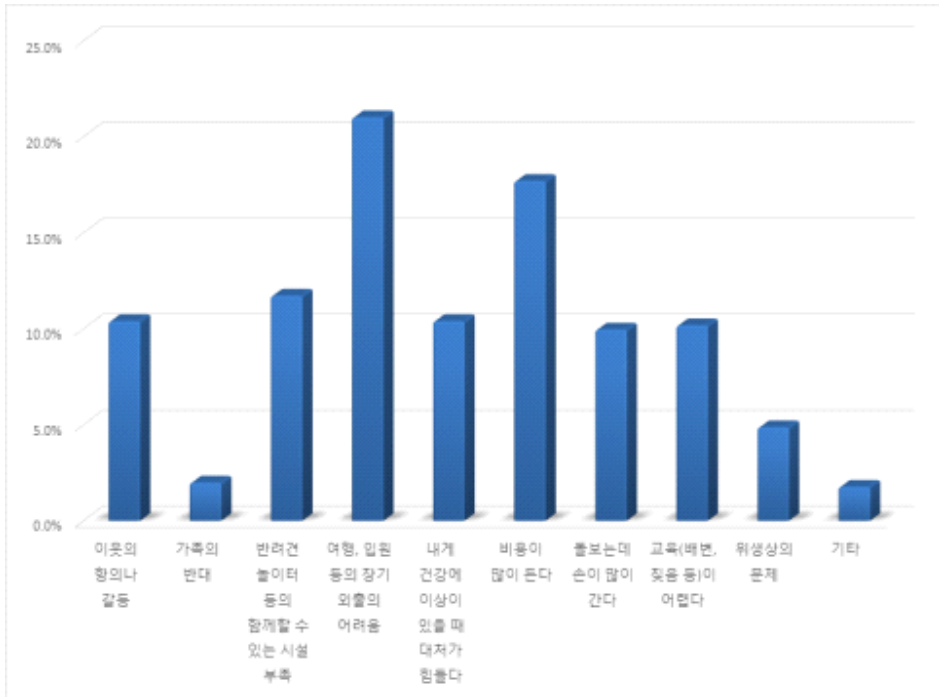
(2)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 반려동물의 동물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한 결과 가입하지 않음이 209명(9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기르는 반려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과 기르는 동물 일부만 가입함이 각각 1명(0.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유무

구분		빈도	올바른 퍼센트
반려동물 동물보험	가입하지 않음	209	99.1
	기르는 반려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	1	0.5
	기르는 동물 일부만 가입함	1	0.5
	총계	211	100.0

10)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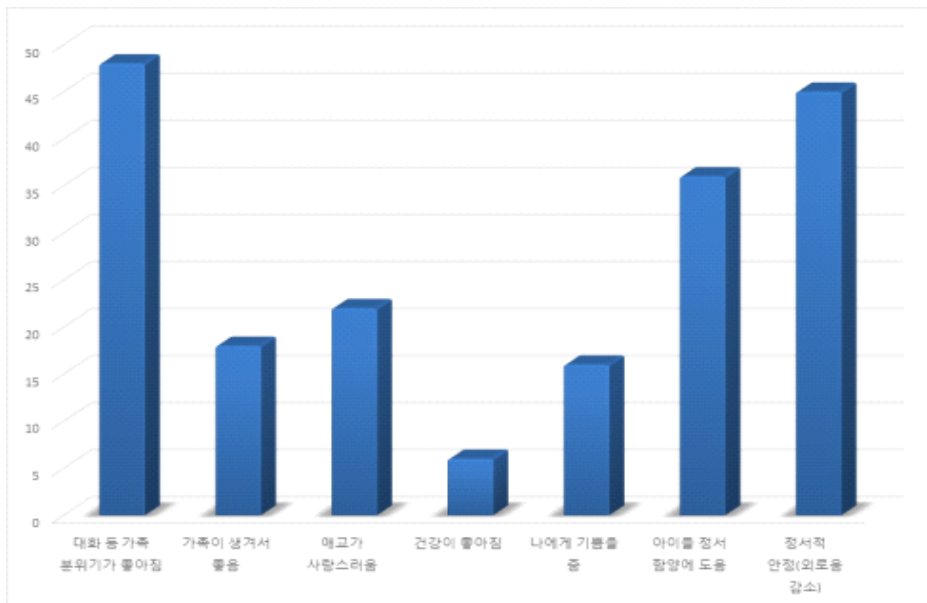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이 95명(2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도 80명(17.7%)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는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53명(11.7%), 이웃의 항의나 갈등과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가 각각 47명(10.4%), 교육(배변, 짚음 등)이 어렵다가 46명(10.2%),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간다가 45명(10.0%), 위생상의 문제가 22명(4.9%), 가족의 반대가 9명(2.0%), 기타의견이 8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산책 매일가기 힘들다와 집에 혼자 두는 것이 어렵다 등이었다.

〈표〉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다중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 양육의 어려운 점	이웃의 항의나 갈등	47	10.4
	가족의 반대	9	2.0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할 수 있는 시설 부족	53	11.7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	95	21.0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47	10.4
	비용이 많이 든다	80	17.7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	45	10.0
	교육(배변, 깃털 등)이 어렵다	46	10.2
	위생상의 문제	22	4.9
	기타	8	1.8
	총계	452	100.0

11) 반려동물을 통한 변화

(1) 반려동물을 통한 삶의 만족도 변화



□ 반려동물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191명(93.2%)의 비율을 보였으며, 변화가 없다가 9명(4.4%),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5명(2.4%)의 비율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대화 등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이 48명(2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정서적 안정(외로움 감소)이 된다고 45명(23.6%)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이 36명(18.8%), 애교가 사랑스러움이 22명(11.5%), 나에게 기쁨을 줌 16명(8.4%), 건강이 좋아짐이 6명(3.2%)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유로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키우기 힘들과 건강상 돌보기 힘들이 각각 1명(50.0%)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191	93.2
	변화 없다	9	4.4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5	2.4
	총계	205	100.0
만족이유	대화 등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	48	25.1
	가족이 생겨서 좋음	18	9.4
	애교가 사랑스러움	22	11.5
	건강이 좋아짐	6	3.2
	나에게 기쁨을 줌	16	8.4
	아이들 정서 함양에 도움	36	18.8
	정서적 안정(외로움 감소)	45	23.6
	총계	96	100.0
불만족 이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키우기 힘들	1	50.0
	건강상 돌보기 힘들	1	50.0
	총계	2	100.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9개의 문항 중에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가 평균 3.77(SD=1.456)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책임감이 생겼다가 평균 3.72(SD=1.625)으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서는 생활이 활기차졌다 평균 3.71(SD=1.396),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평균 3.52(SD=1.296),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평균 3.51(SD=1.314),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평균 3.50(SD=1.332),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평균 3.50(SD=1.378),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평균 3.43(SD=1.120), 건강이 좋아졌다 평균 3.43(SD=1.146) 순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책임감이 생겼다	매우 그렇다	107	50.7	3.72	1.625
	그렇다	42	19.9		
	모르겠다	3	1.4		
	그렇지 않다	14	6.6		
	전혀 아니다	45	21.3		
	총계	211	100.0		
생활이 활기차졌다	매우 그렇다	80	37.9	3.71	1.396
	그렇다	67	31.8		
	모르겠다	13	6.2		
	그렇지 않다	25	11.8		
	전혀 아니다	26	12.3		
	총계	211	100.0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매우 그렇다	66	31.3	3.50	1.378
	그렇다	57	27.0		
	모르겠다	29	13.7		
	그렇지 않다	35	16.6		
	전혀 아니다	24	11.4		
	총계	211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매우 그렇다	94	44.5	3.77	1.456
	그렇다	57	27.0		
	모르겠다	6	2.8		
	그렇지 않다	26	12.3		
	전혀 아니다	28	13.3		
	총계	211	100.0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매우 그렇다	60	28.4	3.51	1.314
	그렇다	60	28.4		
	모르겠다	40	19.0		
	그렇지 않다	29	13.7		
	전혀 아니다	22	10.4		
	총계	211	100.0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55	26.1	3.50	1.332
	그렇다	76	36.0		
	모르겠다	25	11.8		
	그렇지 않다	30	14.2		
	전혀 아니다	25	11.8		
	총계	211	100.0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매우 그렇다	61	28.9	3.52	1.296
	그렇다	57	27.0		
	모르겠다	44	20.9		
	그렇지 않다	29	13.7		
	전혀 아니다	20	9.5		
	총계	211	100.0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매우 그렇다	42	19.9	3.43	1.120
	그렇다	57	27.0		
	모르겠다	74	35.1		
	그렇지 않다	25	11.8		
	전혀 아니다	13	6.2		
	총계	211	100.0		
건강이 좋아졌다	매우 그렇다	43	20.4	3.43	1.146
	그렇다	55	26.1		
	모르겠다	80	37.9		
	그렇지 않다	15	7.1		
	전혀 아니다	18	8.5		
	총계	2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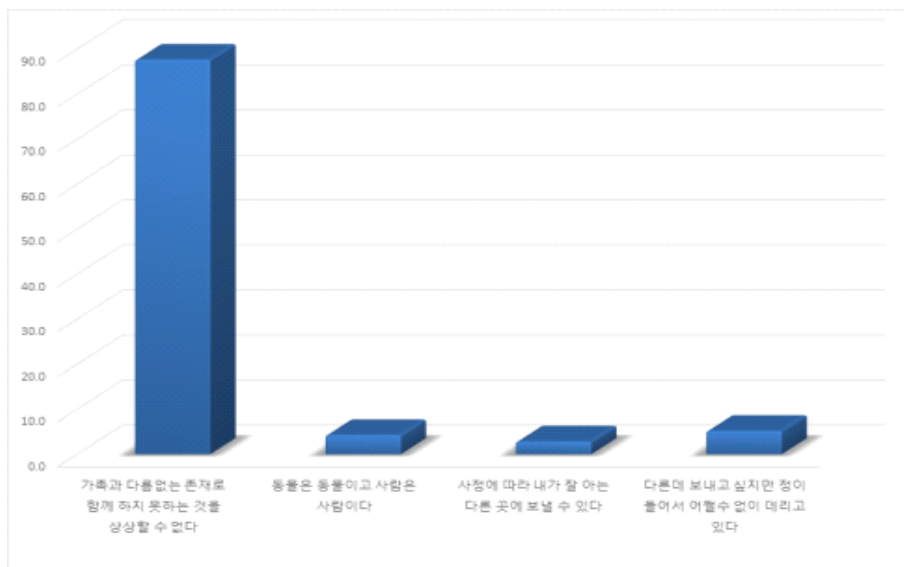
(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의 변화(이외의 변화)

□ 반려동물을 통한 9개의 항목 이외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는 가족들이 공동화제가 생기고 단합하게 되었다,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시야 넓어짐. 세심. 배려가 높아졌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졌다, 산책을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이외의 변화

구분		빈도
이외의 변화	가족들이 공동화제가 생기고 단합함	3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4
	행복지수가 올라감	4
	시야 넓어짐. 세심. 배려가 높아짐	3
	심리적인 안정감	6
	산책을 통해 건강이 좋아짐	3
	총계	23

(4)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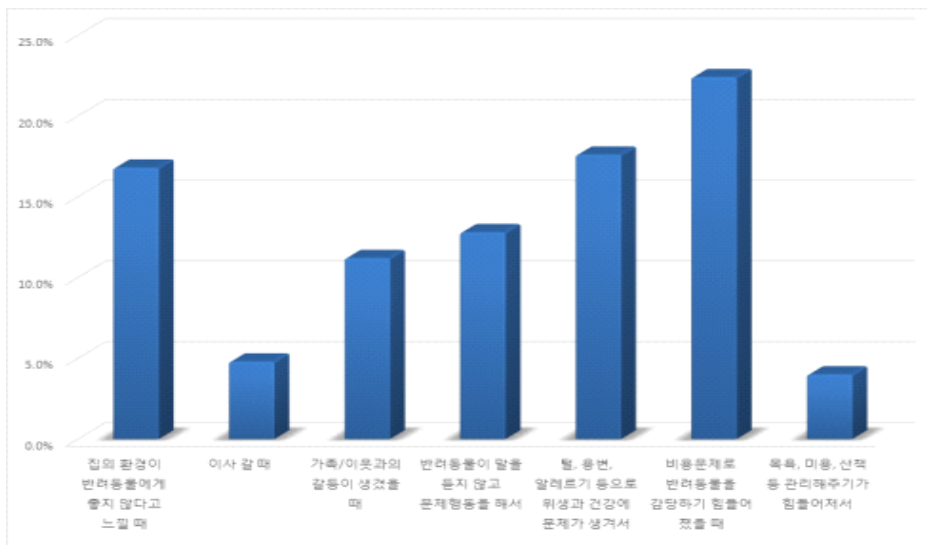


□ 반려동물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질문을 통한 응답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가 185명(8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가 11명(5.2%),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가 9명(4.3%),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가 6명(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대답이 87.7%, 부정적인 대답이 12.3%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구분		빈도	퍼센트
나에게 있어 반려동물의 존재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185	87.7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9	4.3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6	2.8
	다른 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11	5.2
	총계	211	100.0

12)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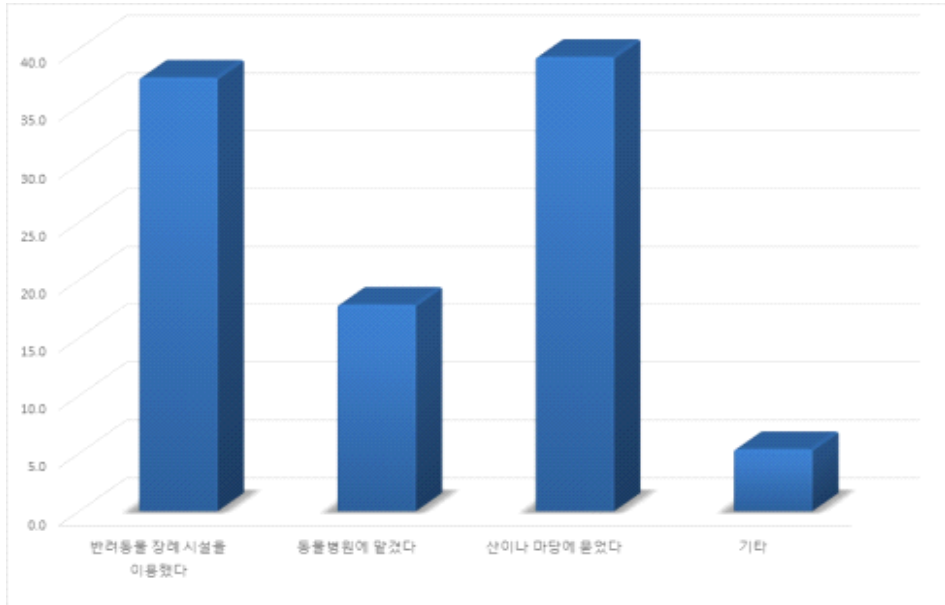


□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42명(67.3%), 있었다가 69명(32.7%)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로는 다중응답 확인 결과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가 28명(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가 22명(17.6%),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21명(16.8%),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가 16명(12.8%),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가 14명(11.2%), 이사 갈 때가 6명(4.8%),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이 들어져서가 5명(4.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의견도 13명(10.4%)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와 건강상 돌보기 힘들어졌을 때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과 이유(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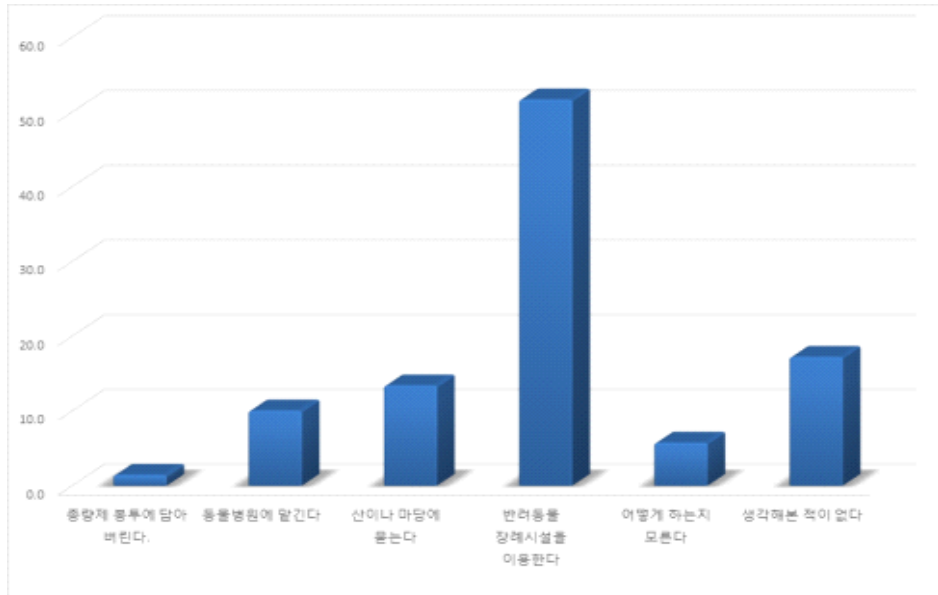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충동경험	없었다	142	67.3
	있었다	69	32.7
	총계	211	100.0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이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21	16.8
	이사 갈 때	6	4.8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14	11.2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16	12.8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22	17.6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 졌을 때	28	22.4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이 들어져서	5	4.0
	기타	13	10.4
	총계	125	100.0

13)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및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없었다가 155명(75.6%), 있었다가 50명(24.4%)으로 나타났다. 있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가 22명(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가 21명(37.5%), 동물병원에 맡겼다 10명(17.9%), 기타가 3명(5.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가 108명(5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36명(17.2%),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가 28명(13.4%), 동물병원에 맡긴다가 21명(10.0%),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가 12명(5.7%),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가 3명(1.4%), 기타로 구청에 신고한다가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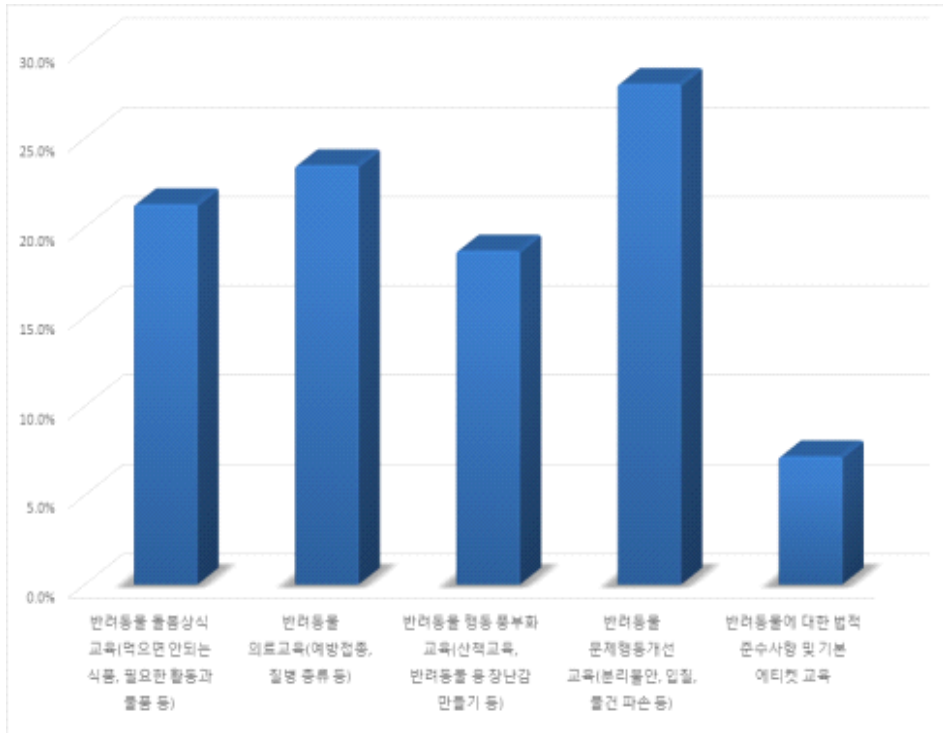


<표>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	없었다	155	75.6
	있었다	50	24.4
	총계	205	100.0
죽은 반려동물 처리 방법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	21	37.5
	동물병원에 맡겼다	10	17.9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	22	39.3
	기타	3	5.4
	총계	56	100.0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처리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3	1.4
	동물병원에 맡긴다	21	10.0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28	13.4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	108	51.7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12	5.7
	생각해본 적이 없다	36	17.2
	기타	1	0.5
	총계	209	100.0

14)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1)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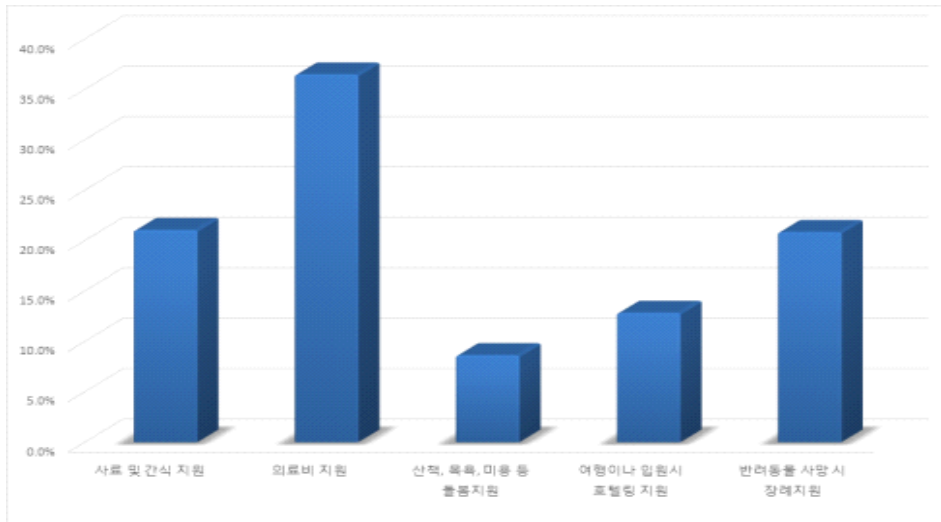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교육(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129명(2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이 108명(23.5%)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서는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98명(21.3%), 반려동물 행동풍부화 교육(산책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이 86명(18.7%),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이 33명(7.2%), 기타교육이 6명(1.3%)의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교육에 관한 의견으로는 배변교육과 식변증 해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반려동물 돌봄상식 교육 (먹으면 안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98	21.3
	반려동물 의료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108	23.5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교육, 반려동물 용 장난감 만들기 등)	86	18.7
	반려동물 문제행동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129	28.0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33	7.2
	기타	6	1.3
총계		460	100.0

(2)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의료비 지원이 182명(3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사료 및 간식 지원 105명(21.0%), 반려동물 사망시 장례지원이 104명(20.8%), 여행이나 입원시 호텔링 지원 64명(12.8%),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43명(8.6%), 기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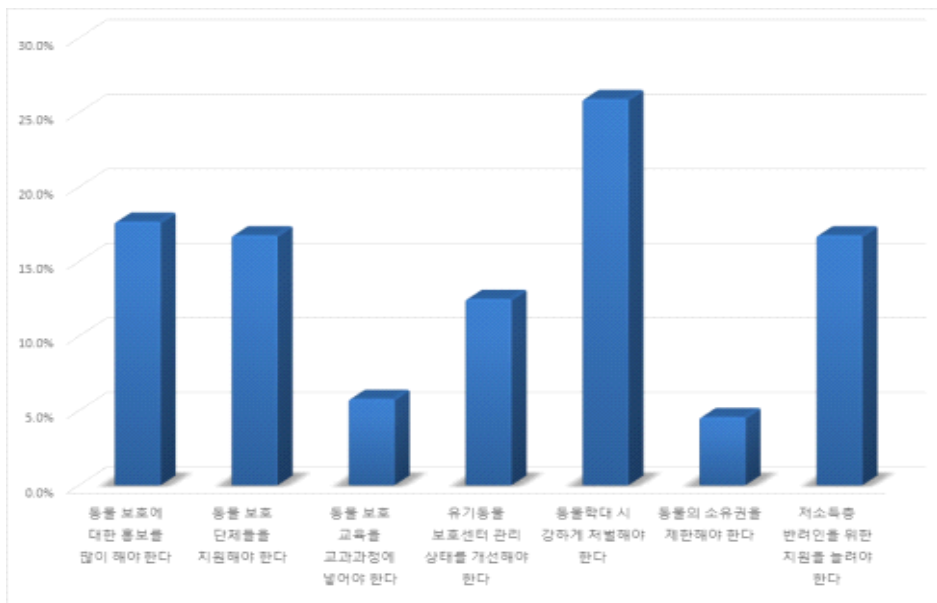
〈표〉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구분		N	퍼센트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	사료 및 간식 지원	105	21.0
	의료비 지원	182	36.5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지원	43	8.6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64	12.8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	104	20.8
	기타	1	0.2
총계		499	100.0

15)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내용

(1)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170명(8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 31명(14.8%)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8명(3.8%), 잘 모르겠다는 2명(0.9%)의 비율을 보였다.



□ 시행되어야 하는 동물보호 정책의 내용으로는 동물학대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85명(2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58명(17.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와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가 각각 55명(16.8%),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가 41명(12.5%), 동물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는가 19명(5.8%),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는가 15명(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구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170	80.5
	어느 정도 필요하다	31	14.8
	별로 필요하지 않다	8	3.8
	잘 모르겠다	2	0.9
	총계	211	100.0
시행되어야 하는 동물보호 정책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58	17.7
	동물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55	16.8
	동물 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19	5.8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41	12.5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85	25.9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	15	4.6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55	16.8
	총계	328	100.0

(2)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바라는 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배변문제 개선에 관한 의견이 11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이 8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길고양이 인식개선, 길고양이 보호 미흡, 반려동물 시설 부족, 방치되는 개의 울부짖음과 소유권 제한 필요함, 큰개의 입막음 문제와 동물과의 싸움 시 상해 분쟁문제가 각각 2명으로 문제에 바라는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고양이를 위한 캣맘지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 길고양이 번식 및 상태 문제, 떠돌이 개들의 관리 문제,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 떠돌이 개 및 길고양이의 지정된 급식시설 마련 필요, 시체 처리를 위한 방안(처리장소 마련 등),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문제,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등과 같은 의견도 나타났다.

<표>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구분		빈도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 바라는 점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	8
	반려동물 배변문제 개선	11
	길고양이 인식개선	2
	길고양이를 위한 캣맘지원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1
	길고양이 번식 및 상태 문제	1
	길고양이 보호 미흡	2
	떠돌이 개들의 관리 문제	1
	길고양이 중성화 문제	1
	떠돌이 개, 길고양이의 지정된 급식시설 마련 필요	1
	로드킬 예방 문제	1
	반려동물 시설 부족	2
	방치되는 개의 울부짖음. 소유권 제한 필요함	2
	시체 처리를 위한 방안(처리장소 마련 등)	1
	재개발지역의 길고양이 이주문제	1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	1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지원	1
	큰개의 입막음 문제, 동물과의 싸움 시 상해 분쟁문제	2
	총계	40

(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동물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법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집분양, 동행 출입시설 증설, 운동공간, 부재 시 돌봄서비스)하다는 의견도 11명으로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교육 지원(입양시 필수교육 등)도 6명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과 동물관련 예산 지원확대 지원에 관한 의견도 각각 4명씩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촉진, 동물보호센터 개선, 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 필요, 예방접종 지원, 유기견 보호소 열악한 환경 개선, 의료보험(동물) 필요, 중성화 수술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및 확대 필요에 관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구분	빈도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바라는 점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행 촉진	1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	4
	동물관련 예산 지원확대	4
	동물학대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법 강화 등)	14
	동물에 대한 교육 지원(입양 시 필수교육 등)	6
	동물보호센터 개선	1
	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인식개선 필요	2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집분양, 동행 출입시설 증설, 운동공간, 부재 시 돌봄서비스)	11
	예방접종 지원	1
	유기견 보호소 열악한 환경 개선	1
	의료보험(동물) 필요	1
	중성화수술 지원 및 관리체계 보완, 확대 필요	3
	더 많은 사업 지원 필요	4
	총계	53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1) 동물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등록제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등록제 알게 된 경로							x ²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동물병원 을 통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를 통해	가족친척 /친구 /자인을 통해	신문/잡지 를 통해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기타	
성별	여성	32.2	14.8	27.5	15.4	2.0	2.7	5.4	6.509
	남성	47.8	17.4	13.0	10.9	2.2	2.2	6.5	
주택형태	단독주택	39.1	8.7	21.7	17.4	0.0	4.3	8.7	11.809
	아파트	40.0	18.8	20.0	10.0	2.5	2.6	6.3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32.2	14.4	27.8	16.7	2.2	2.2	4.4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5.0	13.3	18.3	16.7	1.7	1.7	13.3	29.785
	1세대 세대(부부)	50.0	6.3	31.3	6.3	0.0	6.3	0.0	
	2세대	34.3	17.6	27.5	14.7	2.0	1.0	2.0	
	3세대	33.3	11.1	11.1	22.2	0.0	11.1	11.1	
	기타	37.5	25.0	25.0	0.0	12.5	0.0	0.0	

구분		등록제 알게 된 경로							x ²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	등물방원 을 통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를 통해	가족친척 /친구 /지인을 통해	신문잡지 를 통해	반려동물 동호회를 통해	기타	
연령대	10대 이하	33.3	13.3	26.7	13.3	6.7	6.7	0.0	41.992
	20대	22.9	11.4	34.3	20.0	2.9	0.0	8.6	
	30대	37.9	6.9	34.5	3.4	6.9	6.9	3.4	
	40대	42.2	15.6	24.4	15.6	0.0	0.0	2.2	
	50대	41.0	25.6	7.7	17.9	0.0	2.6	5.1	
	60대 이상	34.4	15.6	21.9	12.5	0.0	3.1	12.5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35.0	21.7	15.0	16.7	0.0	1.7	10.0	26.822
	100~150만원 미만	39.4	14.1	28.2	8.5	4.2	1.4	4.2	
	150~200만원 미만	36.4	18.2	27.3	9.1	0.0	9.1	0.0	
	200만원 이상	32.5	10.0	27.5	27.5	0.0	0.0	2.5	
거주지역	도심권	47.6	14.3	19.0	4.8	9.5	4.8	0.0	28.663
	서북권	15.4	7.7	30.8	23.1	0.0	7.7	15.4	
	동북권	40.2	17.2	19.5	14.9	3.4	1.1	3.4	
	서남권	39.0	12.2	26.8	12.2	0.0	2.4	7.3	
	동남권	21.2	18.2	33.3	18.2	0.0	0.0	9.1	

2)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견 산책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견 산책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산책				x ²
		매일	일주일 1회	일주일 2회	일주일 3회	
성별	여성	38.9	48.1	10.7	2.3	3.704
	남성	43.9	43.9	4.9	7.3	
주택 형태	단독주택	27.8	44.4	22.2	5.6	7.444
	아파트	42.3	47.4	6.4	3.8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41.9	45.9	9.5	2.7	
가구 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44.2	42.3	7.7	5.8	16.322
	1세대 세대(부부)	60.0	20.0	20.0	0.0	
	2세대	31.8	55.7	10.2	2.3	
	3세대	60.0	40.0	0.0	0.0	
	기타	42.9	42.9	0.0	14.3	
연령대	10대 이하	50.0	42.9	0.0	7.1	16.441
	20대	22.9	65.7	11.4	0.0	
	30대	41.7	45.8	8.3	4.2	
	40대	31.4	45.7	17.1	5.7	
	50대	48.6	42.9	5.7	2.9	
	60대 이상	55.2	34.5	6.9	3.4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50.0	32.7	11.5	5.8	9.388
	100~150만원 미만	31.7	57.1	7.9	3.2	
	150~200만원 미만	37.5	62.5	0.0	0.0	
	200만원 이상	42.1	42.1	13.2	2.6	
거주 지역	도심권	36.8	52.6	5.3	5.3	10.151
	서북권	58.3	33.3	8.3	0.0	
	동북권	39.0	41.6	13.0	6.5	
	서남권	36.4	57.6	6.1	0.0	
	동남권	41.9	51.6	6.5	0.0	

3)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지출 비용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지출비용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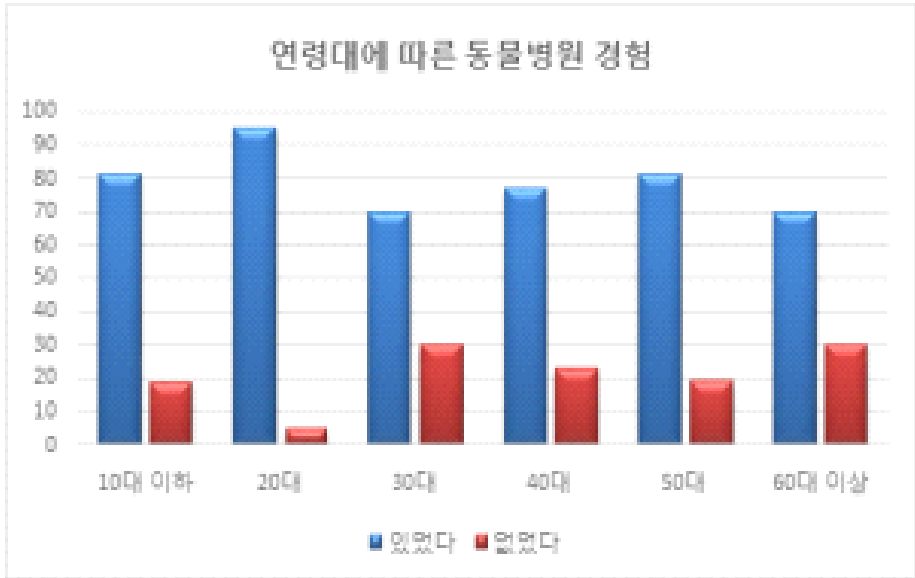
구분		반려동물 지출비용					x ²
		30,000원 미만	30,000 ~50,000원 미만	50,000 ~100,000원 미만	100,000 ~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성별	여성	9.8	9.8	43.1	28.1	9.2	0.880
	남성	10.0	14.0	38.0	28.0	10.0	
주택 형태	단독주택	16.0	12.0	32.0	24.0	16.0	6.630
	아파트	12.3	12.3	40.7	27.2	7.4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6.3	9.5	45.3	29.5	9.5	
가구 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4.1	15.6	39.1	23.4	7.8	13.955
	1세대 세대(부부)	0.0	6.7	33.3	46.7	13.3	
	2세대	8.5	8.5	45.3	28.3	9.4	
	3세대	0.0	9.1	54.5	27.3	9.1	
	기타	28.6	14.3	14.3	28.6	14.3	
연령대	10대 이하	0.0	6.7	46.7	26.7	20.0	24.193
	20대	2.5	10.0	47.5	30.0	10.0	
	30대	6.7	6.7	50.0	23.3	13.3	

구분		반려동물 지출비용					x ²
		30,000원 미만	30,000 ~50,000원 미만	50,000 ~100,000원 미만	100,000 ~200,000원 미만	200,000원 이상	
연령대	40대	13.3	13.3	28.9	31.1	13.3	24.193
	50대	20.0	7.5	47.5	20.0	5.0	
	60대 이상	9.1	18.2	36.4	36.4	0.0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7.2	9.4	35.9	31.3	6.3	18.051
	100~150만원 미만	7.1	15.7	41.4	22.9	12.9	
	150~200만원 미만	0.0	0.0	54.5	18.2	27.3	
	200만원 이상	4.4	11.1	40.0	37.8	6.7	
거주지역	도심권	8.3	8.3	45.8	20.8	16.7	16.090
	서북권	15.4	23.1	38.5	23.1	0.0	
	동북권	11.1	7.8	42.2	25.6	13.3	
	서남권	4.8	14.3	47.6	33.3	0.0	
	동남권	11.8	11.8	32.4	35.3	8.8	

4) 동물병원 경험 및 예방접종에 관한 교차분석

(1)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chi^2 = 9.726, p < .05$)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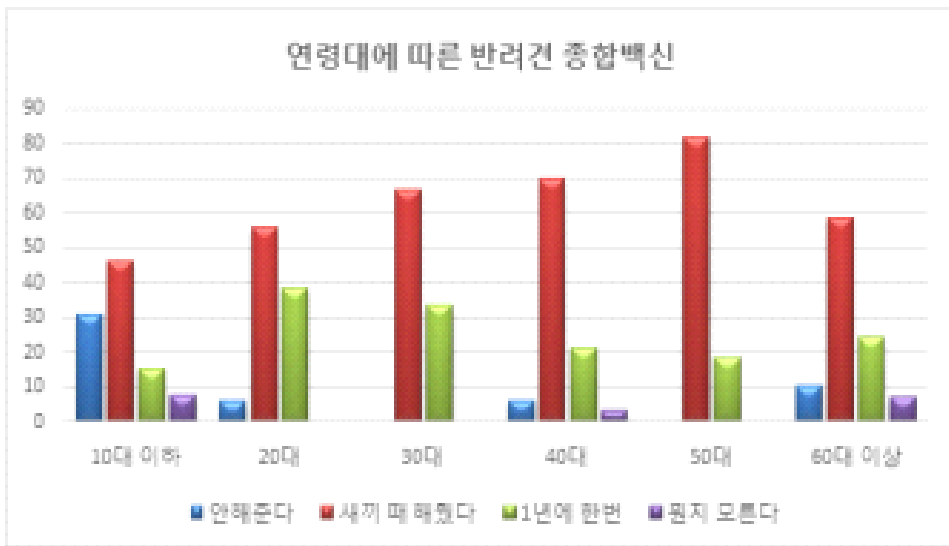
구분		동물병원 경험		χ^2
		있었다	없었다	
성별	여성	80.0	20.0	0.093
	남성	78.0	22.0	
주택형태	단독주택	75.0	25.0	2.711
	아파트	84.3	15.7	
	연립/빌라/다세대주택	76.0	24.0	

구분		동물병원 경험		
		있었다	없었다	χ^2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77.8	22.2	2.994
	1세대 세대(부부)	75.0	25.0	
	2세대	79.6	20.4	
	3세대	100.0	0.0	
	기타	75.0	25.0	
연령대	10대 이하	81.3	18.8	9.726*
	20대	95.0	5.0	
	30대	70.0	30.0	
	40대	77.3	22.7	
	50대	81.0	19.0	
	60대 이상	69.7	30.3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78.1	21.9	1.687
	100~150만원 미만	80.3	19.7	
	150~200만원 미만	63.6	36.4	
	200만원 이상	80.4	19.6	
거주지역	도심권	68.0	32.0	4.581
	서북권	84.6	15.4	
	동북권	76.9	23.1	
	서남권	83.3	16.7	
	동남권	88.2	11.8	

* $p < .05$

(2)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견 종합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chi^2 = 28.343,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견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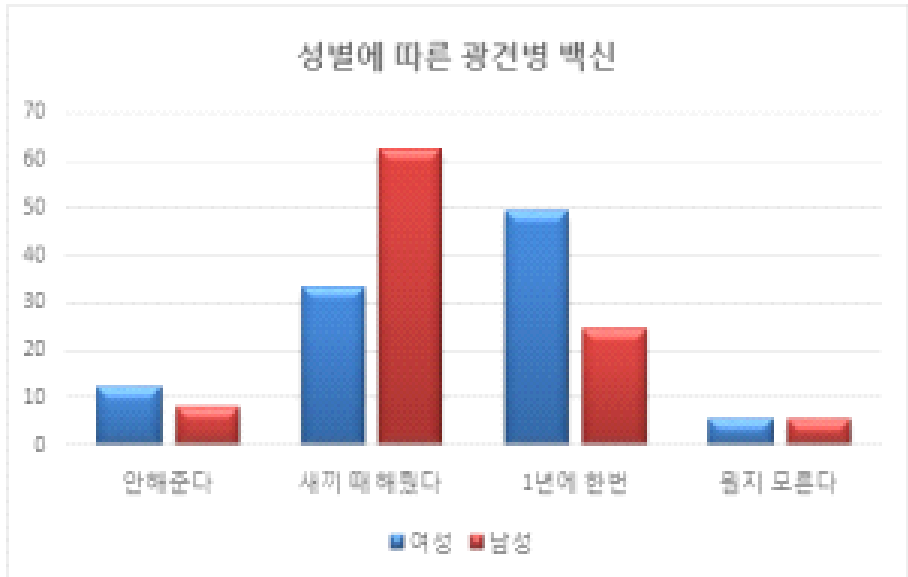
구분		반려견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원지 모른다	
성별	여성	8.1	60.5	29.0	2.4	5.125
	남성	2.6	79.5	15.4	2.6	

구분		반려견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뭘지 모른다	
주택형태	단독주택	17.6	64.7	17.6	0.0	7.250
	아파트	6.7	62.7	29.3	1.3	
	연립/빌라/다세대주택	4.3	68.1	23.2	4.3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9.8	62.7	25.5	2.0	8.041
	1세대 세대(부부)	0.0	66.7	33.3	0.0	
	2세대	6.3	65.0	25.0	3.8	
	3세대	0.0	90.0	10.0	0.0	
	기타	14.3	42.9	42.9	0.0	
연령대	10대 이하	30.8	46.2	15.4	7.7	28.343*
	20대	5.9	55.9	38.2	0.0	
	30대	0.0	66.7	33.3	0.0	
	40대	6.1	69.7	21.2	3.0	
	50대	0.0	81.8	18.2	0.0	
	60대 이상	10.3	58.6	24.1	6.9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0.0	60.0	26.0	4.0	10.512
	100~150만원 미만	6.8	69.5	23.7	0.0	
	150~200만원 미만	0.0	85.7	0.0	14.3	
	200만원 이상	5.6	58.3	33.3	2.8	
거주지역	도심권	0.0	83.3	11.1	5.6	6.886
	서북권	25.0	50.0	25.0	0.0	
	동북권	8.5	63.4	23.9	4.2	
	서남권	0.0	71.0	29.0	0.0	
	동남권	6.5	58.1	35.5	0.0	

*p < .05

(3)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광견병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견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x^2 = 10.532$,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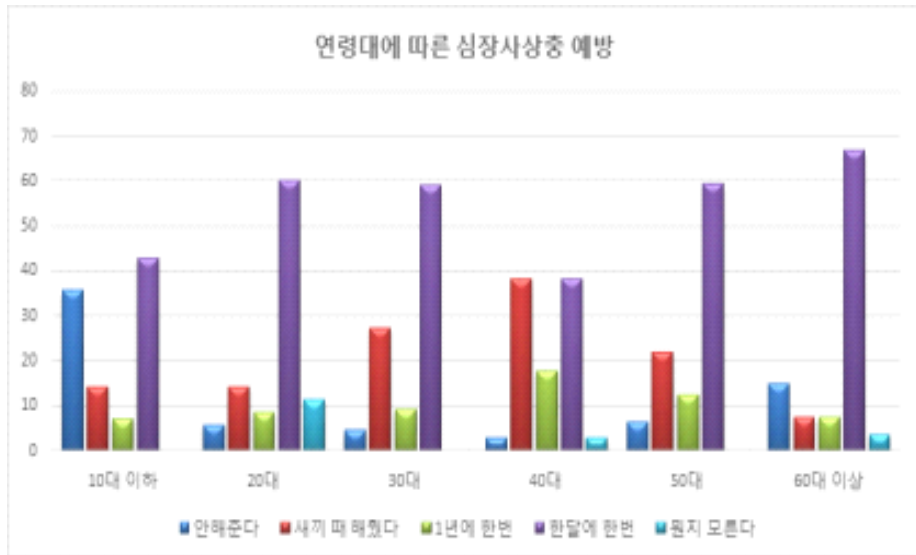
구분		광견병 백신				x^2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몰지 모른다	
성별	여성	12.1	33.1	49.2	5.6	10.532*
	남성	8.1	62.2	24.3	5.4	

구분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될지 모른다	
주택형태	단독주택	6.3	43.8	43.8	6.3	5.419
	아파트	10.8	45.9	40.5	2.7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13.0	31.9	46.4	8.7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8.0	30.0	48.0	4.0	10.659
	1세대 세대 (부부)	0.0	53.3	46.7	0.0	
	2세대	7.6	43.0	41.8	7.6	
	3세대	20.0	40.0	30.0	10.0	
	기타	14.3	42.9	42.9	0.0	
연령대	10대 이하	30.8	15.4	46.2	7.7	19.966
	20대	14.7	29.4	47.1	8.8	
	30대	0.0	38.1	52.4	9.5	
	40대	9.1	57.6	30.3	3.0	
	50대	6.5	51.6	38.7	3.2	
	60대 이상	13.8	31.0	51.7	3.4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6.3	36.7	42.9	4.1	9.162
	100~150만원 미만	6.7	43.3	45.0	5.0	
	150~200만원 미만	0.0	71.4	14.3	14.3	
	200만원 이상	17.6	35.3	44.1	2.9	
거주지역	도심권	5.6	66.7	22.2	5.6	12.177
	서북권	16.7	16.7	58.3	8.3	
	동북권	12.9	37.1	44.3	5.7	
	서남권	3.2	45.2	45.2	6.5	
	동남권	16.7	33.3	46.7	3.3	

*p < .05

(4)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 심장사상충 예방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에 따라 심장사상충 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chi^2 = 36.590$,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심장사상충 예방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심장사상충 예방					χ^2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한달에 한번	뭔지 모른다	
성별	여성	8.7	18.3	11.1	57.9	4.0	3611
	남성	10.5	31.6	10.5	44.7	2.6	

구분		심장사상증 예방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한달에 한번	뭘지 모른다	
주택 형태	단독주택	16.7	22.2	11.1	44.4	5.6	3414
	아파트	8.1	21.6	10.8	56.8	2.7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8.6	20.0	11.4	55.7	4.3	
가구 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14.3	16.3	6.1	57.1	6.1	16.832
	1세대 세대 (부부)	0.0	46.7	0.0	53.3	0.0	
	2세대	7.2	21.7	14.5	53.0	3.6	
	3세대	10.0	20.0	20.0	50.0	0.0	
	기타	14.3	0.0	14.3	71.4	0.0	
연령대	10대 이하	35.7	14.3	7.1	42.9	0.0	36.590*
	20대	5.7	14.3	8.6	60.0	11.4	
	30대	4.5	27.3	9.1	59.1	0.0	
	40대	2.9	38.2	17.6	38.2	2.9	
	50대	6.3	21.9	12.5	59.4	0.0	
	60대 이상	14.8	7.4	7.4	66.7	3.7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14.3	22.4	10.2	51.0	2.0	11.897
	100~150만원 미만	8.3	18.3	10.0	55.0	8.3	
	150~200만원 미만	0.0	42.9	28.6	28.6	0.0	
	200만원 이상	8.1	24.3	10.8	56.8	0.0	
거주 지역	도심권	5.6	38.9	22.2	33.3	0.0	19.398
	서북권	9.1	9.1	9.1	63.6	9.1	
	동북권	10.7	17.3	16.0	52.0	4.0	
	서남권	6.3	21.9	3.1	62.5	6.3	
	동남권	10.7	25.0	0.0	64.3	0.0	

*p < .05

(5)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묘 종합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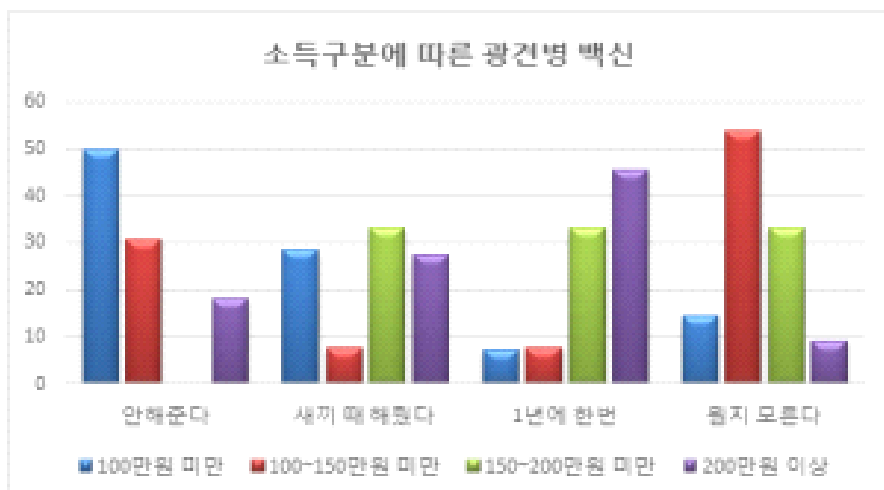
<표> 반려묘 종합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묘 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뭔지 모른다	
성별	여성	8.6	65.7	22.9	2.9	2.130
	남성	15.4	76.9	7.7	0.0	
주택형태	단독주택	11.1	88.9	0.0	0.0	8.523
	아파트	10.0	90.0	0.0	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0.3	55.2	31.0	3.4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20.0	66.7	13.3	0.0	4.228
	1세대 세대(부부)	0.0	100.0	0.0	0.0	
	2세대	6.7	66.7	23.3	3.3	
	3세대	0.0	100.0	0.0	0.0	
	기타	0.0	100.0	0.0	0.0	
연령대	10대 이하	0.0	100.0	0.0	0.0	15.752
	20대	14.3	71.4	14.3	0.0	
	30대	0.0	55.6	44.4	0.0	
	40대	0.0	71.4	21.4	7.1	
	50대	33.3	66.7	0.0	0.0	
	60대 이상	14.3	71.4	14.3	0.0	

구분		반려묘 종합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뭔지 모른다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13.3	80.0	6.7	0.0	13.126
	100~150만원 미만	21.4	64.3	7.1	7.1	
	150~200만원 미만	0.0	50.0	50.0	0.0	
	200만원 이상	0.0	63.6	36.4	0.0	
거주 지역	도심권	14.3	57.1	28.6	0.0	47.69
	서북권	16.7	66.7	16.7	0.0	
	동북권	5.0	70.0	20.0	5.0	
	서남권	9.1	81.8	9.1	0.0	
	동남권	25.0	50.0	25.0	0.0	

(6)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연령대,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백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소득구분에 따라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chi^2 = 17.895,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묘 광견병 백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묘 광견병 백신				χ^2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될지 모른다	
성별	여성	30.3	18.2	27.3	24.2	3.795
	남성	23.1	38.5	7.7	30.8	
주택 형태	단독주택	62.5	12.5	12.5	12.5	8.814
	아파트	10.0	20.0	20.0	5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25.0	28.6	25.0	21.4	
가구 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46.7	6.7	6.7	40.0	14.936
	1세대 세대(부부)	0.0	100.0	0.0	0.0	
	2세대	20.7	27.6	31.0	20.7	
	3세대	0.0	100.0	0.0	0.0	
연령대	10대 이하	0.0	50.0	0.0	50.0	12.896
	20대	14.3	14.3	28.6	42.9	
	30대	11.1	44.4	22.2	22.2	
	40대	23.1	23.1	23.1	30.8	
	50대	57.1	14.3	28.6	0.0	
	60대 이상	50.0	12.5	12.5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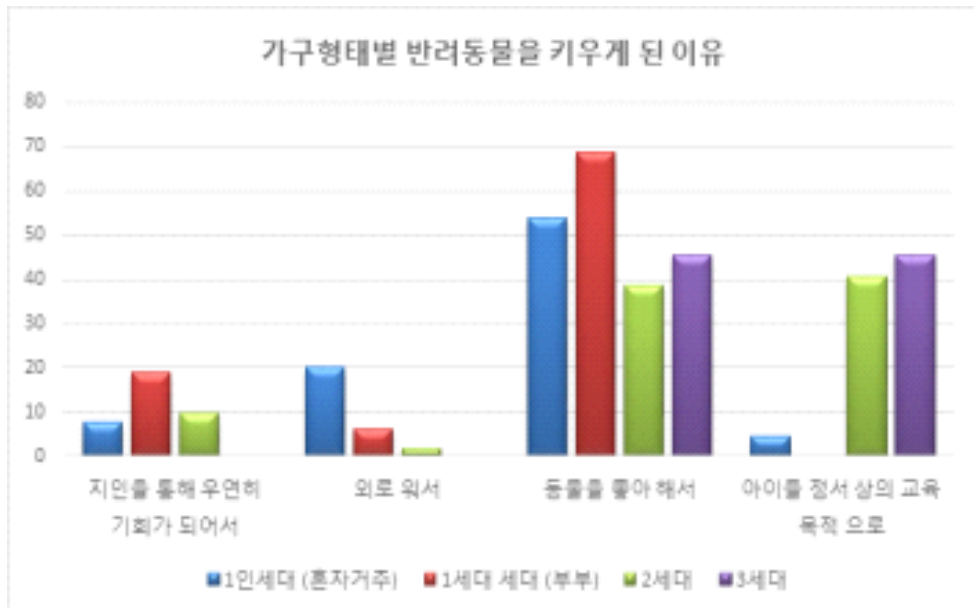
구분		반려묘 광견병 백신				x ²
		안해준다	새끼 때 해줬다	1년에 한번	뭘지 모른다	
소득 구분	100만원 미만	50.0	28.6	7.1	14.3	17.895*
	100~150만원 미만	30.8	7.7	7.7	53.8	
	150~200만원 미만	0.0	33.3	33.3	33.3	
	200만원 이상	18.2	27.3	45.5	9.1	
거주 지역	도심권	14.3	28.6	28.6	28.6	4.769
	서북권	50.0	16.7	0.0	33.3	
	동북권	22.2	33.3	22.2	22.2	
	서남권	27.3	9.1	27.3	36.4	
	동남권	50.0	25.0	25.0	0.0	

*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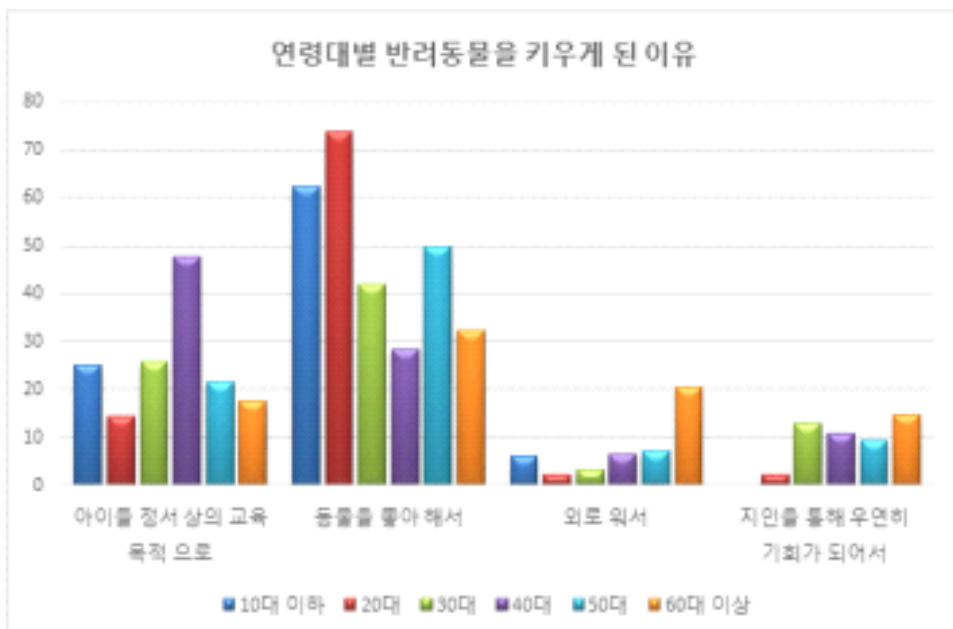
5)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가구 형태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x² =73.559,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chi^2 = 55.995,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키우게 된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키우게 된 이유(다중응답)									x ²
		아이들 정서 상의 교육 목적 으로	동물 을 좋아 해서	외로 워서	가족 분위 기 개선 을 위 해서	지인 을 통 해 우 연 하 기 회 가 되 어서	유 기 동 물 이 불 쌍 해 서	타 인 (동 거 인 가 족 지 인 등 의 권 유 나 부 탁 으 로	집 에 키 우 던 동 물 을 일 지 못 해 서	기 타	
성별	여성	27.2	43.7	7.0	2.5	8.9	4.4	3.2	1.3	1.9	8.108
	남성	22.6	56.6	9.4	0.0	9.4	0.0	0.0	0.0	1.9	
주택형태	단독주택	26.9	38.5	7.7	7.7	7.7	7.7	0.0	0.0	3.8	27.344
	아파트	17.6	52.9	11.8	1.2	9.4	2.4	3.5	1.2	0.0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33.7	43.9	3.1	1.0	9.2	3.1	2.0	1.0	3.1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4.6	53.8	20.0	1.5	7.7	3.1	3.1	1.5	4.6	73.559 ***
	1세대 세대 (부부)	0.0	68.8	6.3	0.0	18.8	0.0	0.0	6.3	0.0	
	2세대	40.5	38.7	1.8	1.8	9.9	4.5	1.8	0.0	.9	
	3세대	45.5	45.5	0.0	0.0	0.0	0.0	9.1	0.0	0.0	
	기타	25.0	62.5	0.0	12.5	0.0	0.0	0.0	0.0	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13.8	47.7	16.9	1.5	10.8	3.1	1.5	1.5	3.1	25.928
	100~150만원 미만	30.7	49.3	4.0	2.7	8.0	2.7	1.3	0.0	1.3	
	150~200만원 미만	50.0	41.7	0.0	0.0	0.0	8.3	0.0	0.0	0.0	
	200만원이상	26.1	43.5	4.3	2.2	13.0	4.3	4.3	2.2	0.0	
연령구간	10대 이하	25.0	62.5	6.3	0.0	0.0	0.0	6.3	0.0	0.0	55.995 *
	20대	14.3	73.8	2.4	2.4	2.4	2.4	0.0	0.0	2.4	
	30대	25.8	41.9	3.2	3.2	12.9	3.2	3.2	0.0	6.5	
	40대	47.8	28.3	6.5	0.0	10.9	4.3	0.0	2.2	0.0	
	50대	21.4	50.0	7.1	2.4	9.5	4.8	2.4	2.4	0.0	
	60대 이상	17.6	32.4	20.6	2.9	14.7	2.9	5.9	0.0	2.9	

*p< .05, **p< .01, ***p< .001

6)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의 급식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의 급식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반려동물의 급식(다중응답)			
		건,습사료	잔반	기타	χ^2
성별	여성	96.0	2.0	2.0	1.617
	남성	95.9	0.0	4.1	
주택형태	단독주택	100.0	0.0	0.0	1.858
	아파트	95.1	2.5	2.5	
	연립/빌라/다세대주택	95.7	1.1	3.2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93.5	1.6	4.8	6.882
	1세대 세대(부부)	100.0	0.0	0.0	
	2세대	97.1	1.9	1.0	
	3세대	100.0	0.0	0.0	
	기타	87.5	0.0	12.5	

구분		반려동물의 급식(다중응답)			
		건,습사료	잔반	기타	χ^2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91.9	1.6	6.5	8.095
	100~150만원 미만	97.2	1.4	1.4	
	150~200만원 미만	100.0	0.0	0.0	
	200만원 이상	97.6	2.4	0.0	
연령대	10대 이하	92.9	0.0	7.1	12.312
	20대	100.0	0.0	0.0	
	30대	90.3	3.2	6.5	
	40대	97.6	0.0	2.4	
	50대	94.6	2.7	2.7	
	60대 이상	97.1	2.9	0.0	
거주지역	도심권	95.8	4.2	0.0	3.491
	서북권	100.0	0.0	0.0	
	동북권	95.2	1.2	3.6	
	서남권	95.3	2.3	2.3	
	동남권	97.1	0.0	2.9	

7)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 동물등록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 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동물등록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동물등록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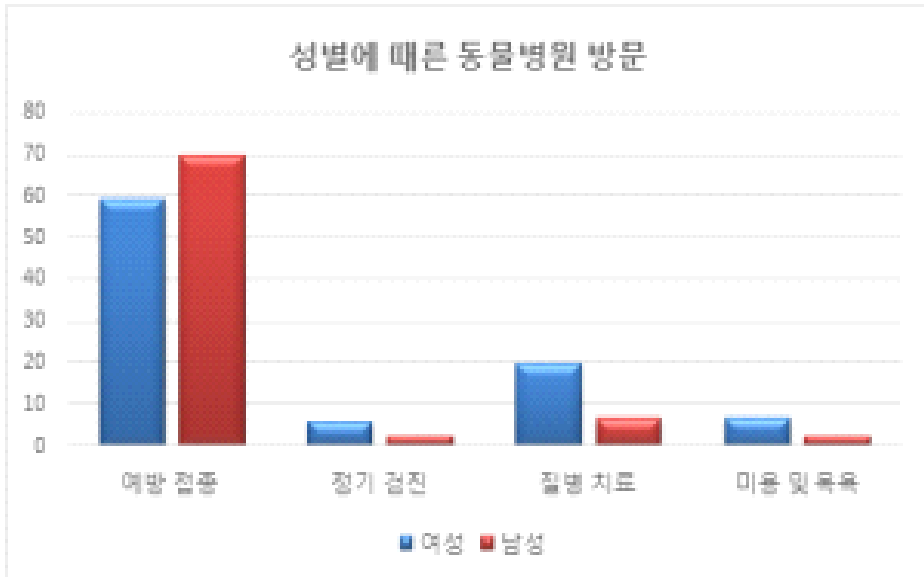
구분		동물등록		
		등록	미등록	χ^2
성별	여성	42.6	57.4	0.136
	남성	45.7	54.3	
주택형태	단독주택	28.6	71.4	2.178
	아파트	46.2	53.8	
	연립/빌라/다세대주택	44.2	55.8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34.5	65.5	6.428
	1세대 세대(부부)	61.5	38.5	
	2세대	42.9	57.1	
	3세대	54.5	45.5	
	기타	71.4	28.6	
소득구간	100만원 미만	39.7	60.3	0.565
	100~150만원 미만	46.2	53.8	
	150~200만원 미만	40.0	60.0	
	200만원 이상	42.9	57.1	

구분		동물등록		
		등록	미등록	χ^2
연령대	10대 이하	46.2	53.8	2.189
	20대	47.5	52.5	
	30대	48.1	51.9	
	40대	33.3	66.7	
	50대	44.4	55.6	
	60대 이상	43.8	56.3	
거주지역	도심권	40.9	59.1	3.560
	서북권	46.2	53.8	
	동북권	40.0	60.0	
	서남권	38.5	61.5	
	동남권	57.6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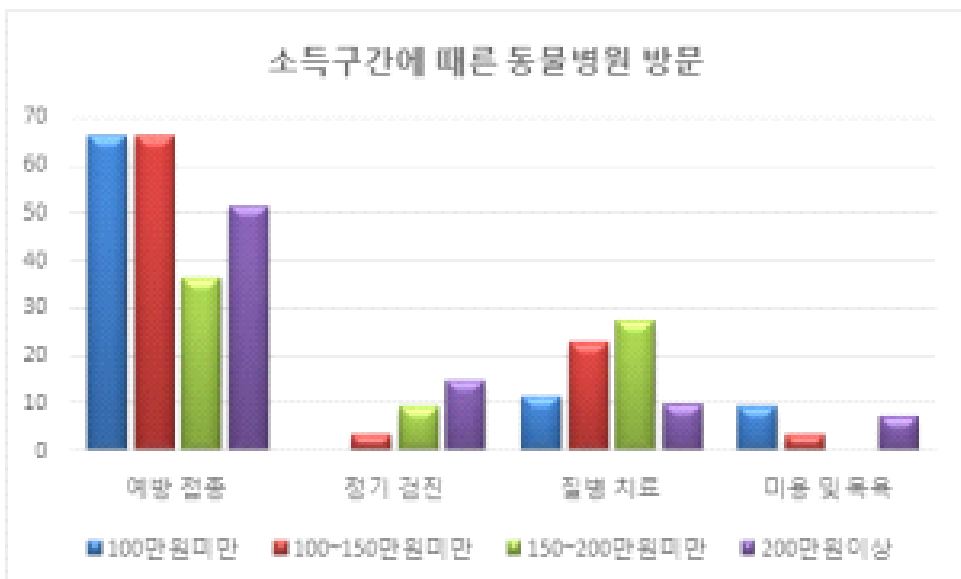
8)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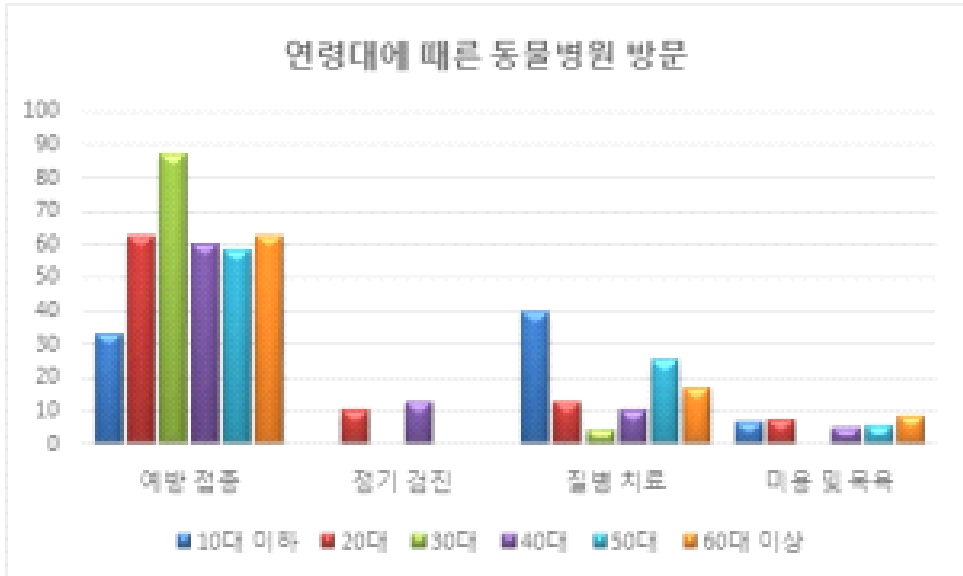
□ <표>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chi^2 = 11.131$,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소득구간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chi^2 = 29.437,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하여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chi^2 = 34.667$,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동물병원 방문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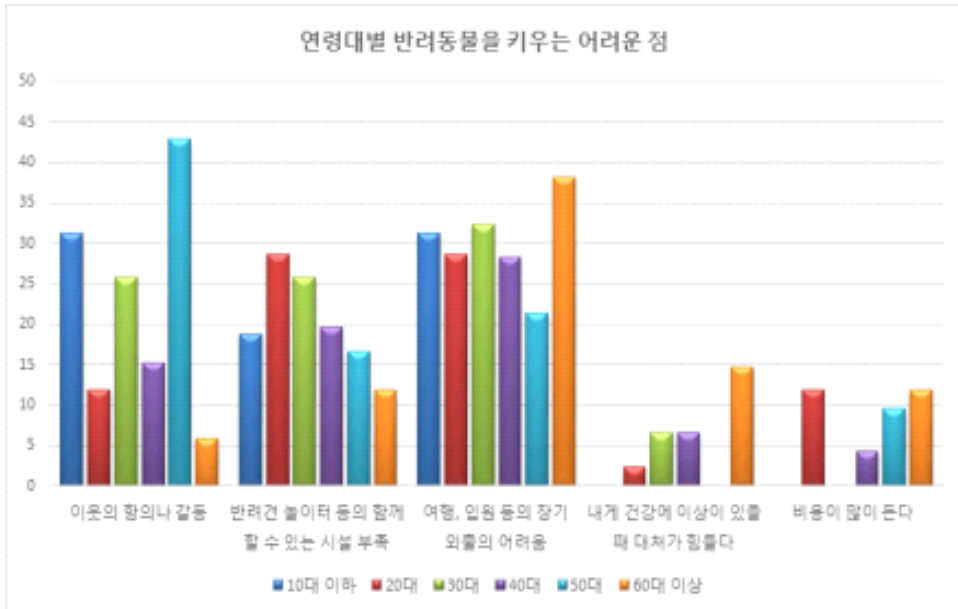
구분		동물병원 방문(다중응답)						χ^2
		예방접종	정기검진	질병치료	상행치료	미용 및 목욕	기타	
성별	여성	59.4	6.0	19.5	1.5	6.8	6.8	11.131*
	남성	69.6	2.2	6.5	6.5	2.2	13.0	
주택형태	단독주택	50.0	10.0	20.0	5.0	5.0	10.0	16.010
	아파트	63.5	1.4	16.2	1.4	8.1	9.5	
	연립/빌라/다세대주택	63.9	7.2	15.7	3.6	2.4	7.2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62.7	0.0	17.6	2.0	7.8	9.8	14.254
	1세대 세대(부부)	57.1	7.1	7.1	7.1	7.1	14.3	
	2세대	57.7	8.2	17.5	3.1	5.2	8.2	
	3세대	90.9	0.0	9.1	0.0	0.0	0.0	
	기타	83.3	0.0	16.7	0.0	0.0	0.0	

구분		동물병원 방문(다중응답)						x ²
		예방 접종	정기 검진	질병 치료	상행 치료	미용 및 목욕	기타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66.0	0.0	11.3	3.8	9.4	9.4	29.437*
	100~150만원미만	66.1	3.2	22.6	0.0	3.2	4.8	
	150~200만원미만	36.4	9.1	27.3	0.0	0.0	27.3	
	200만원이상	51.2	14.6	9.8	7.3	7.3	9.8	
연령대	10대 이하	33.3	0.0	40.0	6.7	6.7	13.3	34.667*
	20대	62.5	10.0	12.5	0.0	7.5	7.5	
	30대	87.5	0.0	4.2	0.0	0.0	8.3	
	40대	60.0	12.5	10.0	5.0	5.0	7.5	
	50대	58.3	0.0	25.0	5.6	5.6	5.6	
	60대 이상	62.5	0.0	16.7	0.0	8.3	12.5	
거주지역	도심권	71.4	4.8	14.3	0.0	0.0	9.5	19.429
	서북권	46.2	15.4	15.4	7.7	15.4	0.0	
	동북권	63.2	2.6	13.2	3.9	6.6	10.5	
	서남권	59.5	5.4	27.0	2.7	0.0	5.4	
	동남권	62.5	6.3	12.5	0.0	9.4	9.4	

*p< .05, **p< .01, ***p< .001

9)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이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chi^2 = 61.743,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려움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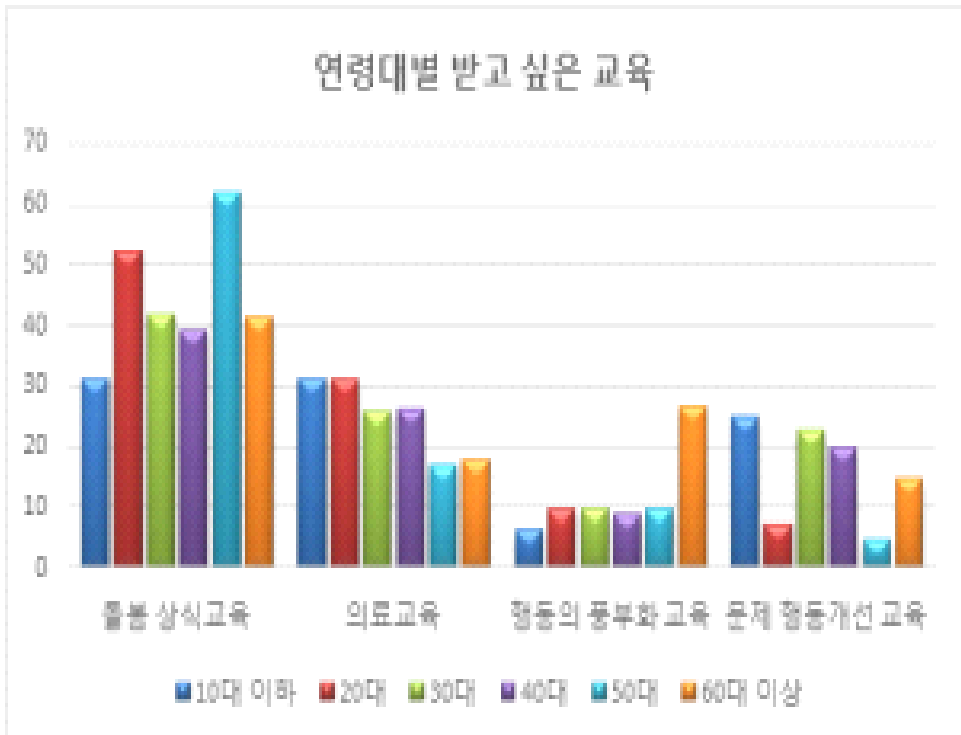
구분		어려운 점 (다중응답)										χ^2
		이웃의 혐이나 갈등	가족의 반대	반려견 놀이터 등의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여행, 입원 등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	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간다	교육 (배변, 짖음 등)이 어렵다	위생상의 문제	기타	
성별	여성	24.1	1.9	20.3	28.5	5.7	5.7	3.8	5.7	1.9	2.5	11.700
	남성	13.2	7.5	20.8	32.1	3.8	11.3	7.5	1.9	0.0	1.9	

구분		어려운 점 (다중응답)										x ²
		이웃의 칭의나 갈등	가족 의 반대	반려견 등의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여행 업원의 장기 외출의 어려움	내게 건강에 이상 있을 때 대처가 힘들다	비용이 많이 든다	돌보 는데 손이 많이 간다	교육 (배변 짓음 등)이 어렵다	위생 상의 문제	기타	
주택형태	단독주택	23.1	3.8	15.4	38.5	3.8	0.0	0.0	3.8	3.8	7.7	25.388
	아파트	18.8	1.2	20.0	28.2	7.1	9.4	4.7	4.7	2.4	3.5	
	연립/빌라 /다세대주택	23.5	5.1	21.4	28.6	4.1	6.1	6.1	5.1	0.0	0.0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23.1	1.5	10.8	27.7	9.2	10.8	4.6	7.7	3.1	1.5	42.630
	1세대 세대 (부부)	12.5	6.3	56.3	18.8	0.0	0.0	0.0	6.3	0.0	0.0	
	2세대	22.5	3.6	20.7	31.5	3.6	6.3	4.5	3.6	.9	2.7	
	3세대	9.1	0.0	18.2	45.5	9.1	0.0	18.2	0.0	0.0	0.0	
	기타	25.0	12.5	25.0	12.5	0.0	12.5	0.0	0.0	0.0	12.5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23.1	3.1	20.0	18.5	10.8	9.2	3.1	7.7	3.1	1.5	25.049
	100~150만원미만	26.7	4.0	14.7	33.3	4.0	8.0	2.7	2.7	1.3	2.7	
	150~200만원미만	25.0	8.3	16.7	33.3	0.0	8.3	8.3	0.0	0.0	0.0	
	200만원이상	13.0	2.2	26.1	30.4	2.2	4.3	10.9	6.5	0.0	4.3	
연령대	10대 이하	31.3	0.0	18.8	31.3	0.0	0.0	0.0	6.3	6.3	6.3	61.743 *
	20대	11.9	4.8	28.6	28.6	2.4	11.9	7.1	4.8	0.0	0.0	
	30대	25.8	0.0	25.8	32.3	6.5	0.0	3.2	3.2	0.0	3.2	
	40대	15.2	8.7	19.6	28.3	6.5	4.3	6.5	4.3	0.0	6.5	
	50대	42.9	0.0	16.7	21.4	0.0	9.5	4.8	2.4	2.4	0.0	
	60대 이상	5.9	2.9	11.8	38.2	14.7	11.8	2.9	8.8	2.9	0.0	
거주지역	도십권	30.8	7.7	15.4	30.8	3.8	0.0	3.8	7.7	0.0	0.0	29.747
	서북권	26.7	0.0	20.0	13.3	6.7	13.3	6.7	13.3	0.0	0.0	
	동북권	20.4	3.2	20.4	31.2	6.5	6.5	4.3	3.2	2.2	2.2	
	서남권	7.0	2.3	27.9	34.9	4.7	9.3	4.7	2.3	0.0	7.0	
	동남권	32.4	2.9	14.7	23.5	2.9	8.8	5.9	5.9	2.9	0.0	

*p< .05, **p< .01, ***p< .001

1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소득구분,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chi^2 = 38.253,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x ²
		돌봄 상식 교육	의료 교육	행동의 풍부화 교육	문제 행동 개선 교육	법 적 수 사 항 및 기 본 에 티 켓 교육	기타	
성별	여성	46.8	24.7	12.0	13.3	1.9	1.3	0.593
	남성	45.3	22.6	11.3	17.0	1.9	1.9	
주택형태	단독주택	50.0	19.2	15.4	11.5	3.8	0.0	9.601
	아파트	50.6	23.5	9.4	12.9	2.4	1.2	
	연립/빌라/다세대주택	42.9	26.5	12.2	15.3	1.0	2.0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50.8	15.4	16.9	13.8	1.5	1.5	17.596
	1세대 세대(부부)	50.0	25.0	25.0	0.0	0.0	0.0	
	2세대	40.5	30.6	7.2	17.1	2.7	1.8	
	3세대	63.6	18.2	9.1	9.1	0.0	0.0	
	기타	62.5	12.5	12.5	12.5	0.0	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52.3	15.4	16.9	10.8	3.1	1.5	21.932
	100~150만원 미만	49.3	24.0	12.0	12.0	1.3	1.3	
	150~200만원 미만	41.7	33.3	0.0	16.7	0.0	8.3	
	200만원이상	32.6	37.0	8.7	19.6	2.2	0.0	
연령대	10대 이하	31.3	31.3	6.3	25.0	0.0	6.3	38.253 *
	20대	52.4	31.0	9.5	7.1	0.0	0.0	
	30대	41.9	25.8	9.7	22.6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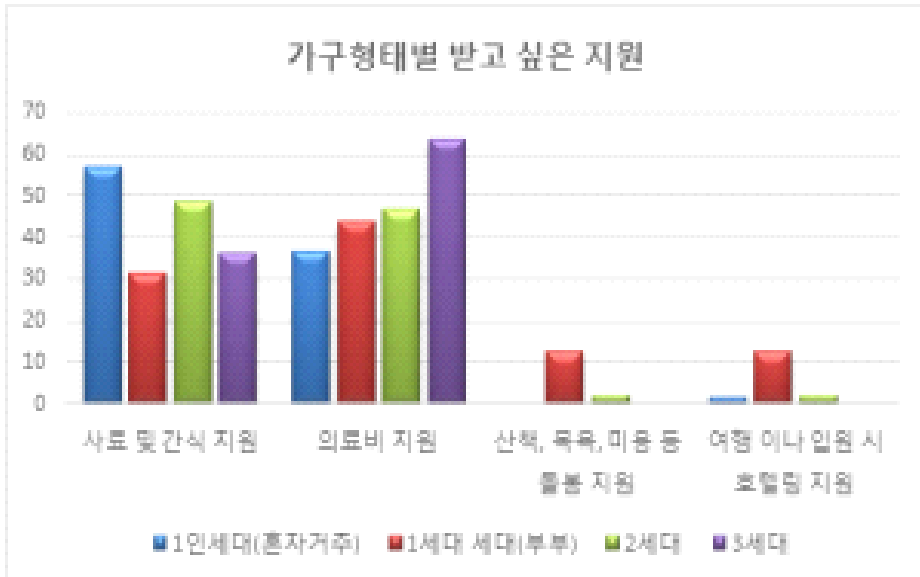
구분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x ²
		돌봄 상식 교육	의료 교육	행동의 풍부화 교육	문제 해결 교육	법 적 수 준 향 상 및 기 본 에 티 켓 교육	기타	
연령대	40대	39.1	26.1	8.7	19.6	2.2	4.3	38.253 *
	50대	61.9	16.7	9.5	4.8	7.1	0.0	
	60대 이상	41.2	17.6	26.5	14.7	0.0	0.0	
거주지역	도심권	46.2	26.9	11.5	11.5	3.8	0.0	14.546
	서북권	60.0	13.3	13.3	13.3	0.0	0.0	
	동북권	47.3	21.5	14.0	11.8	2.2	3.2	
	서남권	53.5	23.3	7.0	16.3	0.0	0.0	
	동남권	29.4	35.3	11.8	20.6	2.9	0.0	

*p< .05,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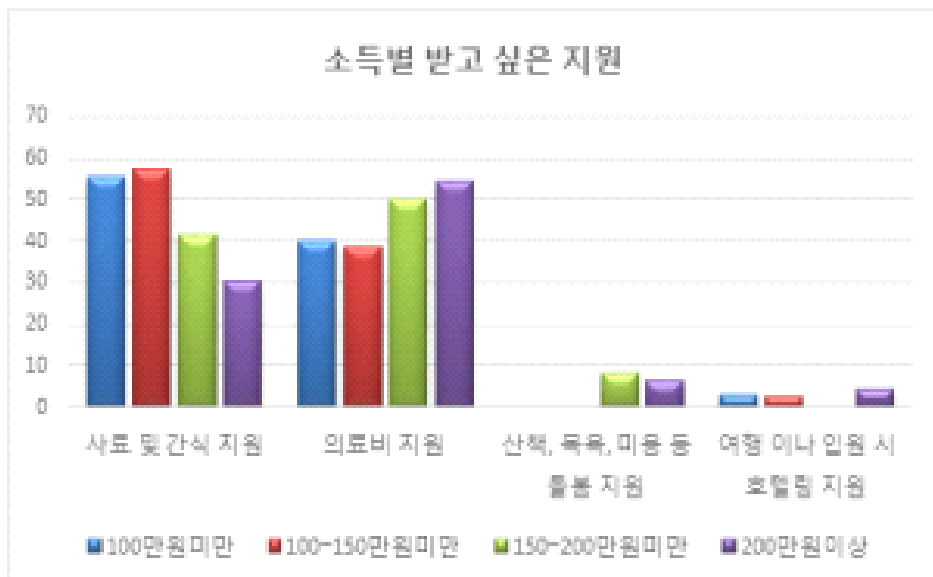
11)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택형태, 가구형태, 소득구분, 연령대,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가구형태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² =29.330, p<.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소득구간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chi^2 = 22.726$, $p < .05$),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구분		받고 싶은 지원(다중응답)						x ²
		사료 및 간식 지원	의료비 지원	산책, 미용, 등 돌봄 지원	여행 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반려 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기타	
성별	여성	48.1	46.2	1.9	3.2	.6	0.0	7.287
	남성	54.7	35.8	1.9	1.9	3.8	1.9	
주택형태	단독주택	61.5	30.8	0.0	3.8	0.0	3.8	3.721
	아파트	51.8	44.7	0.0	1.2	2.4	0.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44.9	46.9	4.1	3.1	1.0	0.0	
가구형태	1인세대(혼자거주)	56.9	36.9	0.0	1.5	3.1	1.5	29.330 *
	1세대 세대(부부)	31.3	43.8	12.5	12.5	0.0	0.0	
	2세대	48.6	46.8	1.8	1.8	.9	0.0	
	3세대	36.4	63.6	0.0	0.0	0.0	0.0	
	기타	62.5	25.0	0.0	12.5	0.0	0.0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55.4	40.0	0.0	3.1	1.5	0.0	22.726 *
	100~150만원미만	57.3	38.7	0.0	2.7	0.0	1.3	
	150~200만원미만	41.7	50.0	8.3	0.0	0.0	0.0	
	200만원이상	30.4	54.3	6.5	4.3	4.3	0.0	
연령대	10대 이하	37.5	56.3	0.0	0.0	6.3	0.0	23.181
	20대	40.5	50.0	2.4	7.1	0.0	0.0	
	30대	58.1	35.5	3.2	0.0	3.2	0.0	
	40대	47.8	41.3	4.3	4.3	2.2	0.0	
	50대	57.1	40.5	0.0	2.4	0.0	0.0	
	60대 이상	52.9	44.1	0.0	0.0	0.0	2.9	
거주지역	도심권	50.0	42.3	3.8	3.8	0.0	0.0	13.905
	서북권	53.3	40.0	0.0	0.0	6.7	0.0	
	동북권	54.8	39.8	2.2	2.2	1.1	0.0	
	서남권	44.2	48.8	0.0	2.3	2.3	2.3	
	동남권	41.2	50.0	2.9	5.9	0.0	0.0	

*p< .05, **p< .01, ***p< .00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1)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만족도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반려동물 만족도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54	1.10	.399	0.582	
	남성	51	1.06	.238		
	전체	205	1.09	.365		
주택형태	단독주택	24	1.08	.282	0.051	
	아파트	83	1.10	.370		
	연립/빌라 /다세대 주택	98	1.09	.386		
	전체	205	1.09	.365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62	1.06	.248	0.579	
	1세대 세대(부부)	16	1.13	.500		
	2세대	108	1.12	.426		
	3세대	11	1.00	.000		
	기타	8	1.00	.000		
	전체	205	1.09	.365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64	1.05	.213	0.655	
	100~150만원미만	71	1.11	.433		
	150~200만원미만	12	1.00	.000		
	200만원 이상	45	1.09	.358		
	전체	192	1.08	.338		
연령대	10대 이하	16	1.06	.250	0.066	
	20대	38	1.08	.359		
	30대	31	1.10	.301		
	40대	45	1.09	.417		
	50대	41	1.10	.374		
	60대 이상	34	1.12	.409		
	전체	205	1.09	.365		
거주지역	도심권	25	1.00	.000	2.087	
	서북권	14	1.00	.000		
	동북권	90	1.12	.419		
	서남권	43	1.02	.152		
	동남권	33	1.21	.545		
	전체	205	1.09	.365		

2)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삶의 변화도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삶의 변화도를 주택형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 (F=2.468,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정으로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아파트’ 집단이 ‘단독주택’, ‘연립/빌라/다세대주택’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삶의 변화도를 연령대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 ($F=2.211$,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0대’, ‘6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삶의 변화도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58	3.5661	1.19149	0.000	
	남성	53	3.5639	1.20458		
	전체	211	3.5656	1.19191		
주택형태	단독주택 a	26	3.4060	1.41000	2.468*	b>a,c
	아파트 b	85	3.7595	1.1557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c	100	3.4739	1.14023		
	전체	211	3.5656	1.19191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65	3.6308	1.24507	0.564	
	1세대 세대(부부)	16	3.6111	1.36264		
	2세대	111	3.5195	1.14427		
	3세대	11	3.2525	1.43164		
	기타	8	4.0139	.70882		
	전체	211	3.5656	1.19191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65	3.4342	1.36461	1.127	
	100~150만원미만	75	3.6474	1.04812		
	150~200만원미만	12	4.0556	.97615		
	200만원 이상	46	3.4831	1.20657		
	전체	198	3.5640	1.19492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연령대	10대 이하 a	16	3.7292	1.03675	2.211*	ef>abcd
	20대 b	42	3.5820	1.17507		
	30대 c	31	3.4731	1.25445		
	40대 d	46	3.1184	1.17528		
	50대 e	42	3.8492	1.20893		
	60대 이상 f	34	3.8072	1.11525		
	전체	211	3.5656	1.19191		
거주지역	도심권	26	3.8376	1.08786	0.536	
	서북권	15	3.6741	1.01006		
	동북권	93	3.4970	1.23441		
	서남권	43	3.6047	1.18840		
	동남권	34	3.4477	1.25395		
	전체	211	3.5656	1.19191		

*p< .05, **p< .01, ***p< .001

3)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동물정책의 필요성은 주택형태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나타나 (F=2.164, p<.05)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은 Scheffe 검증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파트’ 집단이 ‘단독주택’, ‘연립/빌라/다세대주택’ 집단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동물정책의 필요성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성별	여성	156	3.79	1.714	0.014	
	남성	52	3.83	1.735		
	전체	208	3.80	1.715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Scheffe
주택형태	단독주택 a	26	3.4060	1.41000	2.164*	b>a,c
	아파트 b	85	3.7595	1.15570		
	연립/빌라/다세대주택 c	100	3.4739	1.14023		
	전체	211	3.5656	1.19191		
가구형태	1인세대 (혼자거주)	64	3.72	1.741	0.327	
	1세대 세대(부부)	16	3.94	1.769		
	2세대	109	3.77	1.730		
	3세대	11	4.00	1.732		
	기타	8	4.38	1.408		
	전체	208	3.80	1.715		
소득구분	100만원 미만	65	3.48	1.812	2.187	
	100~150 만원미만	72	4.03	1.601		
	150~200 만원미만	12	4.58	1.165		
	200만원 이상	46	3.63	1.830		
	전체	195	3.78	1.725		
연령대	10대 이하	16	4.06	1.611	1.450	
	20대	41	4.02	1.508		
	30대	31	3.71	1.847		
	40대	44	3.23	1.903		
	50대	42	4.05	1.637		
	60대 이상	34	3.94	1.650		
	전체	208	3.80	1.715		
거주지역	도심권	25	4.44	1.325	1.689	
	서북권	14	4.36	1.447		
	동북권	92	3.59	1.786		
	서남권	43	3.84	1.689		
	동남권	34	3.65	1.824		
	전체	208	3.80	1.715		

*p< .05, **p< .01, ***p< .001

IV. 제언

1. 중성화 확대 및 취약가구 중성화 수술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취약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56.9%로 제일 많았으며 이는 키우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지인을 통해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라는 상위권 답변과도 상통한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기회가 되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이유 응답으로는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로는 특히 60대 이상이, 가구형태로는 특히 1세대 세대(부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에 있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일반 가정의 미중성화로 인한 개체 증식이 여전히 비밀비재 하고 이것이 취약가구의 준비되지 않은 돌봄 생활 요인이 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우리처럼 동물 유기와 방치 문제가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중성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취약가구는 중성화 수술을 안한 이유에 대하여 49.5%가 너무 비싼 수술비를 사유로 드는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수술비가 저렴한 수컷만 선택적으로 중성화 한 경우도 적지 않게 관찰 되었다. 돌봄 취약가구의 중성화 확산을 위해서는 부담이 큰 수술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 취약가구 의료교육과 지원으로 동물의 복지를 높이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취약가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유로 최근 1년 이내에 동물병원에 방문했다(79.5%)고 응답했다. 44.2%는 예방접종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방문했는데 ‘접종 종류는 잘 모르지만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접종해 주고 있다’ 가 41.5%로 제일

높은 응답이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접종을 해주기보다 예방접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종합백신의 경우 새끼 때 해주고 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응답은 개와 고양이 모두 각각 65% 이상이였다. 그나마 정책적 지원이 있는 반려견 광견병 백신의 경우 정기접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본 사업단에서 애니멀 호더에 대한 조건 없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멀 호더 내지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구 거의 전체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가구의 동물 돌봄 실태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애니멀 호더 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취약가구에 대한 의료적 차원의 돌봄 교육은 위험군 관리와 건강한 반려생활 모두를 위하여 필요하다. 취약가구가 받고 싶은 교육을 확인한 결과, 반려동물 문제행동개선 교육에 이어(28%),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반려동물 의료교육(23.5%) 수요였고, 먹이면 안되는 것이나 동물에게 필요한 활동 등 돌봄 상식 교육(21.3%),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18.7%) 등도 수요가 높은 편이었다.

3. 다양한 자원연계로 평생 반려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돌봄 취약가구의 대다수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으며 (93.2%)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87.7%)고 답변했다.

본 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은 취약가구 가족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가구는 아이들 정서상 교육 목적, 외로움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도 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으로 취약가구에 책임감 함양, 활기찬 생활, 스트레스 감소, 외로움 감소,

운동량 증가, 긍정적인 사고, 사람들과의 대화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취약가구는 반려동물 양육상 어려움 또한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서 여행, 입원 등 장기외출의 어려움(21%), (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로 추정되는) 비용부담으로 인한 어려움(17.7%), 반려견 놀이터 등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족(11.7%), 이웃의 항의나 갈등(10.4%), 보호자 건강 이상시 대처가 힘들(10.4%), 교육(배변, 깃털) 등에 관한 어려움(10.2%)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취약가구 가운데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었던 층동 경험자가 32.7%로 적지 않았다. 그 사유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22.4%), 위생과 보호자 건강상 문제(17.6%),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16.8%), 반려동물의 문제행동(12.8%), 가족/이웃과의 갈등(11.2%) 등이었다.

돌봄 취약가구는 동물학대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동물보호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80.5%에 이르는 대다수가 동물보호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의 내용으로 동물학대시 강력한 처벌(25.9%),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확대(17.7%), 동물보호 단체 지원(16.8%), 저소득층 반려인 지원(16.8%),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상태 개선(12.5%) 등을 꼽았다.

각종 교육과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본 조사는 취약가구 응답자로부터 의료비 지원(36.5%), 사료 및 간식 지원(21%), 장례 지원(20.8%), 여행이나 입원시 호텔링 지원(12.8%) 등의 직접적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어려운 점과 받고 싶은 교육에 있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만큼 자원연계는 연령에 따른 맞춤형 접근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다. 차이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50대와 60대 이상 집단이 반려동물로 인한 삶의 변화도 평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원연계는 평생 반려의 ‘상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취약가구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법제 강화 등 구조적 제어와 준비된 ‘평생 반려’ 문화 정착이 필요 하다.

취약가구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대부분 알고는 있었지만(92.9%) 실제 동물을
등록한 경우는 43.2%에 그쳤다. 동물등록을 한 경우 가운데 내장형 칩 동물등록
은 36%였고 나머지는 외장형이나 인식표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해 취약가구는 내장형 칩의 부작용 우려(27.3%), 동물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랐음
(25%), 등록비용의 부담(19.7%) 등을 꼽았는데 2014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이 의
무화 되고 미등록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조사에 따르면 과거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취약가구는 55.0%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 반려동물을 키운 기간은 평균 7.5년이며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 사
망 경험이 있는 가구도 24.4%로 나타나 반려동물을 오래 양육하는 가구가 적음
을 짐작할 수 있었다.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은 품종이 믹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개의 경우 약 80% 고양이의 경우 약 40%가 품종에 속했다. 동물을 키우게 된 경
로와 관련해서도 펫샵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25.6%)는 응답이 지인으로부터 받
았다는 응답 다음으로 높았다. 애니멀 호더 위험군 가구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모
두가 품종인 사례가 꽤 높게 관찰된 바 펫샵 혹은 브리딩이 위험군 양산의 원인
도 되고 결과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한 돌봄과 방치가 가능한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제어가 필요하다.
아무나 동물을 쉽게 얻거나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관련 법제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 준비된 반려생활, 건강한 평생 반려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바른 동물 양육 정보제공 및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사회 전방위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 ③ 외로워서
- ④ 가족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 ⑤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
- ⑥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 ⑦ 타인(동거인, 가족, 지인 등)의 권유나 부탁으로
- ⑧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 ⑨ 기타 (구체적으로:_____)
- ⑩

A2.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펫샵 등에서 돈을 주고 샀다 ② 가족, 이웃 등 지인을 통해서 받았다
- ③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간접구조) ④ 직접 구조한 동물이다
- ⑤ 기타(_____)

A3. 반려동물의 특성에 체크(√) 또는 기록해 주십시오.

문항	구분 (개) (고양이)	세부사항
종	품종() / 믹스()	
성별/ 연령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 연령 ()세	과거 병력 × / ○ () 현재 질병 × / ○ ()
급식	①건·습사료 ②잔반 ③기타()	월비용 ()만원
동물 등록	①등록(☞ B3) ②미등록(☞ B4)	내장형 O/X 인식표 O/X
기타특성		

문항	구분 (개) (고양이)	세부사항
종	품종() / 믹스()	
성별/ 연령	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 연령 ()세	과거 병력 × / ○ () 현재 질병 × / ○ ()
급식	①건·습사료 ②잔반 ③기타()	월비용 ()만원
동물 등록	①등록(☞ B3) ②미등록(☞ B4)	내장형 O/X 인식표 O/X
기타특성		

※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 칸이 부족할 경우 조사원이 적절하게 기록.

B16.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만족도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그 이유는?_____)
- ② 변화 없다.
- ③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그 이유는?_____)

B17.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책임감이 생겼다					
생활이 활기차졌다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건강이 좋아졌다					

B18. 이외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B19. 귀하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 ①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 ②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 ③ 사정에 따라 내가 잘 아는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 ④ 다른데 보내고 싶지만 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다.
- ⑤ 내가 잘 모르는 곳이라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다.
- ⑥ 버릴 수 있다.
- ⑦ 기타 (_____)

B20. 반려동물을 그만 키우거나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없었다.
- ② 있었다.(☞B21)

B21. (B20의 ② 항목 응답자만) 어떤 때 반려동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까? (최대 3개 선택)

- 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 ② 이사 갈 때
- ③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 ④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 ⑤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 ⑥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 ⑦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주기가 힘들어서
- ⑧ 기타 ()

B22. 귀하께서는 지난 5년간 기르시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안락사 포함)이 있습니까?

- ① 없었다.
- ② 있었다.(☞B23)

B23. (B22의 ② 항목 응답자만) 지난 5년간 가장 최근에 죽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했다.(☞B24)
- ②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
- ③ 동물병원에 맡겼다.
- ④ 산이나 마당에 묻었다.
- ⑤ 기타()

B24.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 ② 동물병원에 맡긴다.
- ③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 ④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한다.
- 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 ⑥ 생각해본 적이 없다.
- ⑦ 기타()

B25. 반려동물과 관련하고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 선택)

- ①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 ② 반려동물 의료 교육(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 ③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산책 교육, 반려동물 용 장난감 만들기 등)
- ④ 반려동물 문제행동 개선 교육(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 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 ⑥ 기타()

B26. 반려동물과 관련하고 받고 싶은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 선택)

- ① 사료 및 간식 지원
- ② 의료비 지원
- ③ 산책, 목욕, 미용 등 돌봄 지원
- ④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 ⑤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 ⑥ 기타()

Part C.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관련 사항

C1.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C2)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C2)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C3)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C3)
- ⑤ 잘 모르겠다.

C2. (C1의 ①, ② 응답자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동물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물 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 ② 동물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 ③ 동물 보호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 ④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 ⑤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⑥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해야한다.
- ⑦ 저소득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 ⑧ 기타()

C3.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기탄없이 해주십시오.
()

C4. 우리 동네에 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와 바라시는 바를 말씀 해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